

용인 행정타운 주변 처인중심권 개발 본격화

용인, 역삼지구 69만㎡ 10년만에 환지계획 인가... 적극적 행정으로 기관·조합원 이해 조율해 사업 급진전

10년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용인 행정타운 주변의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가 최근 환지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용인시는 처인구 역삼동 363번지 일대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69만㎡에 대해 공공용지와 체비지를 뺀 23만㎡를 조합원 몫으로 정하는 환지계획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지·기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던 처인지역에 단일사업지구로는 전국적인 규모로 중심상업지역이 개발돼 용인시 전역의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역삼지구 개발은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구역내 일부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할 체비지와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 토지를 조합원들이 나누게 된다. 이같은 환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역삼지구는 다음달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1년말 구획정리를 마치고, 빠르면 2022년부터 주민 입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삼지구 개발계획은 △상업 및

업무용지 12만6천㎡ △복합용지 5만7천㎡ △주상복합용지 19만7천㎡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 등) 31만㎡로 행정타운 배후기능을 갖도록 했다. 또 주상복합용지에 5,256세대 아파트 등이 들어서 약 1만4,7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역삼지구 개발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치상승과 기반시설 설치

및 각종 토목·건축공사 등으로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8년 지구지정된 역삼지구는 학교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각 기관의 이견이 많은데다 블록별 개발을 둘러싸고 조합내부의 불협화음과 자금조달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화됐다.

이로 인해 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받은 것은 물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가중과 토지거래의 어려움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 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기관간 의견을 조율하고, 수십 차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이번 환지계획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 조합측 관계자는 "용인시의 적극

적 행정으로 그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10년 동안 지체됐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로 역삼지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돼 행정타운 주변이 100만 도시에 걸맞은 대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 전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철 기자**

살충제 계란 검출농가 전국 32농가 중 경기도 17농가 최고

부적합 17곳 중 친환경농장인증 15곳 '충격'

피프로닐(Fipronil)과 에톡사졸(Etoxazole), (비펜트린(Bifenthrin), 플루페녹스론(Flufenoxuron) 등 살충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32곳으로 늘었다.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5), 경남(3), 울산(2) 등이었으며, 강원, 경북, 광주, 대전, 전남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내 부적합 판정(검출)된 17농가 중 친환경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15곳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많은 이유는 전국 산란계 농장의 약 32%가 몰려있

기 때문인 것"으로 전했다. 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도내 256농가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된 172농가 중 현재까지 17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는 17일 22시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부적합 농가에서 반출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판매처 추적 및 판매중단하고 46만 3천개 계란을 회수(폐기) 조치하는 한편 검사에 합격한 172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유통을 허용했다.

또, 이번에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매2주 간격으로 규제검사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

이다. 도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했던 포천 동물약품판매상에 대해서는 판매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동물약품 불법 제조·유통 등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 중간조사결과 이 판매상은 5월경 중국을 통해 분말형태의 피프로닐을 직수입한 후 400l의 물에 희석해 10l씩 나눠 포천, 연천, 남양주, 강원 철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고 축산산업국장은 "그동안(관리에)소홀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기자**



어르신 즐김터 현판식 강동구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7일 오후 수원문화원에서 열린 '어르신 즐김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경기, 중소기업 미혼근로자 대상 '함박함술' 추진

레크리에이션·오페라 공연 등 행복찾기 프로젝트 진행

경기도가 취미활동이 어렵거나 만남의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미혼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나를 위한 행복찾기 프로젝트 '직장남녀 함박함술' 프로그램을 1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9월 15일까지 4차례 걸쳐 진행한다. '함박함술'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혼밥혼술'과 달리 함께 밥 먹고 함께 술을 마시자는 뜻으로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자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담은 말이다.

강동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출산대책의 중점을 보육부담 경감에서 만혼·비

혼대행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미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장남녀 함박함술'은 도내 92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 200여명이 참가해 오리엔테이션과 야외활동 2회, 브리핑모임 등 총 4차례 열린다. 먼저 17일 오후 판교

경기장조경재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에는 뮤지컬 배우 정명은, 박민배씨의 뮤지컬 갈라콘서트 공연과 스타강사 김미경씨의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법, 인생미(美)담'을 주제로 한 특강, '우리들의 삶과 행복'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8월 26일과 9월 2일 두 차례 진행되는 야외 프로그램에는 팀워크를 다지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락밴드, 오페라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9월 15일 경기장조경혁신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동아리 결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태 기자**

경기, 체인지업캠퍼스 브랜드 디자인 확정

이달 말까지 특허출원 완료... 시설물 교체 예정

경기도가 파주와 양평에 위치한 경기영어마을을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체인지업캠퍼스로 전환한 가운데 체인지업캠퍼스의 브랜드 디자인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체인지업캠퍼스 상포 업무표장 출원을 마쳤으며 8

월말까지 브랜드 디자인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시설물 교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체인지업캠퍼스 브랜드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만드는 장소를 브랜드 콘셉트로 미래, 변화, 도전, 상승 등 캠퍼스의 핵심 가치를 다양한 기호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슬로건으로 'wow! 즐거운 지식배움터 체인지업캠퍼스'를 정했다.

확정된 체인지업캠퍼스 브랜드 디자인 확정에 따라 도는 노후된 안내판과 도로 이정표 등 사인물을 교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체인지업캠퍼스는 21세기 미래인재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중이다. **■김진태 기자**

55 국민과 함께 55년 숲으로 여는 미래

산후와 임업인의 풍요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산림조합
어린이가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가꾸는 산림조합
희망을 나누고 사회와 함께 하는 산림조합

SJ 산림조합

현대차 '차세대 수소전기차' 세계 최초 공개

내년 초 공식 출시... "현대자동차 최고 기술력 집대성"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친환경차인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글로벌 시장에 친환경차를 2020년까지 현재 14종에서 31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그룹 차원의 친환경차 로드맵을 공개했다.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로서 기술 리더십을 보다 굳건히 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 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차원이다.

현대자동차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문을 연 '수소전기하우스'에서 선보인 연료전지시스템을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이어 63컨벤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차세대 수소전기차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그룹 차원의 '친환경차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친환경차로 주목 받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기술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미래 무공해 친환경차 시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인 미래 무공해 친환경차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기존 파워트레인 플랫폼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갖춘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광국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은 '차세대 수소전기차 미디어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수소전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헤리티지와 리더십을

상징한다"며, "오늘 공개한 신차를 통해 수소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청정 에너지원 수소로 운영되는 수소사회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친환경차 전략 발표를 맡은 이광상 환경기술센터장(전무)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문제로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친환경차 개발에 기술 역량을 총동원해 전기차, 수소전기 등 미래 친환경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쌓아온 친환경차 전기동력시스템 기술력, 한 단계 진보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그리고 미래 자동차 기술까지 현대자동차의 최고 기술력이 집대성되어 탄생했다.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핵심 기술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효율, 성능, 내구, 저장 등 4가지 부문에서 모두 기존 투싼 수소전기차 대비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냄으로써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과 상품성을 확보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연료전지의 성능 및 수송이용물의 업그레이드, 부품의 고효율화를 통해 '차세대 수소전기차' 시스템 효율 60%를 달성, 기존 55.3% 대비 약 9% 향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수소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국내 기준 580km 이상의 항속거리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연료전지시스템 압력 가변 제어 기술 적용으로 차량의 최대 출력력을 기존 대비 약 20% 이상 향상, 163마력(PS)을 달성해 동급 내연기

관차와 동등한 성능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시스템의 핵심기술인 막전극접합체(MEA)와 금속분리판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등 기술 국산화와 더불어 수소전기차에 최적화된 핵심부품 일관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

전기화학적 반응을 하는 연료전지의 특성상 추운 지방에서의 시동성은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난제이다.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냉시동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10년 16만km 수준의 연료전지 내구 성능 기술을 적용해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수소 탱크 패키지 최적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저장 밀도를 확보했다.

내년 초 공식 출시되는 '차세대 수소전기차'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개발 중인 최첨단 미래 기술이 적용된 운전 보조 시스템(ADAS)을 만나볼 수 있으며, △원격 자동 주차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편의·안전 사양을 갖춰 주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자연친화적인 이미지와 첨단 기술간의 균형 잡힌 조화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현대자동차는 효율을 강조했던 기존 친환경차의 디자인을 넘어 '차세대 수소전기차'의 탄생에 걸맞은 차별화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장거리 수소전기차와 함께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는 자신감 넘치는 라이프스타일과 당당한 SUV의 캐리커를 디자인에 부여했다.

특히, '차세대 수소전기차'는 △2피스 공력 휠 △D필러 에어터널 △전동식 도어 핸들 등 첨단 디자인과 공력 기술이 융합된 요소들을 새롭게 적용해 공력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최초로 전동식 도어 핸들을 적용해 공기역학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시그니처인 캐스캐이딩 그릴은 컴포지트 라이트와 함께 어우러져 고유의 강한 개성을 갖춘 전면부 디자인이 완성됐다.



현대자동차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문을 연 '수소전기하우스'에서 선보인 연료전지시스템을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이어 63컨벤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차세대 수소전기차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그룹 차원의 '친환경차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측면부 디자인은 긴 보닛과 짧은 프론트·리어 오버행으로 구성되어 다이내믹한 실루엣을 완성했으며, 지붕이 떠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를 통해 미래지향적이면서 날렵해보이는 효과를 연출했다.

실내 디자인 역시 첨단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현대자동차 최초로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대시보드 아키텍처를 구현했다.

아울러 넓은 수평형 레이아웃의 대시보드와 하이포지션 콘솔을 적용해 독창적인 탑승감 확보와 공간감 극대화에 주력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0년까지 선보이겠다고 밝힌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HEV) 10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1종 △전기차(EV) 8종 △수소전기차(FCEV) 2종 등 총 31종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우선 하이브리드(H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 라인업 강화에 주력한다. 중국의 친환경차인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성능 향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회 충전 주행거리 191km로 도심 주행에 적합한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성공적으로 출시,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써온 현대자동차그룹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통해 구현한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바탕으로 장거리 주행을 가능한 전기차 개발에 주력한다.

단계적으로는 2018년 상반기에 1회 충전으로 390km 이상 주행 가능한 소형 SUV 코나 기반의 전기차를 공개할 계획이며, 향후 1회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차급에 따라 배터리 용량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신규 개발해 주행거리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최적의 성능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21년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 전기차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차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연료전지시스템의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 등 상품성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세단 기반의 수소전기차도 선보여 수소전기차 대중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수소전기버스 또한 올해 4분기에 공개하고, 내년 초 고객들이 직접 수소전기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내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차세대 수소전기차'의 차명과 주요 신기술을 공개하며, 자율주행뿐 아니라 탑승자와 차량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HMI(Human-Machine Interface)' 신기술을 선보인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등 다양한 시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소전기차의 우수한 성능을 보다 쉽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현대자동차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선보이고, 새로운 수소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은 기자

'5대 경북형 일자리' 추경편성으로 본격 가속화

경북도가 17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경북형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서'를 갖고, 일자리 도정에 한층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날로 악화되고, 청년실업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고 있음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루어 졌다.

특히, 최근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1,500억원 규모의 경북도 추경예산이 지난 14일 의회로 제출됨에 따라, 각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 등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에 도입해 대통령과 총리로부터 극찬 받은 바 있는 경북형 일자리 추진상황이 중점 보고됐다.

경북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 화제를 모은 주4일 근무제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30개 출자출연기관 정원의 20%(400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되며, 올 하반기 8개 기관 27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기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강점과 특성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북형 청년일자리에는 최근 시범사업(10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과거점'을 필두로,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사업(하반기 100명)과 지역 노포기업(대대로 물려오는 점포에 청년 디자이너 등을 지원하는 '경북청년 노포기업 지원단' 등의 새로운 시책들이 추진된다.

급속한 농촌 고령화와 시장개방 확대 등에 맞서, 1·2·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혁신을 도모하는 농업6차산업혁명 일자리는, 오는 2021년까지 300개의 선도모델(경영체)과 10개소의 집적화 지구를 조성해 총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올해 하반기 내에 143개소의 선도모델(경영체) 인증과 3개소의 집적화지구 조성에 힘쓰면서, 핵심사업인 '돌봄농장(Care Healing Farm)' 시범사업(2개소)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OECD 최저 수준의 저출산 고착화와 어린이 보육 안전, 여성사회 진출 확대 등에 대응한 여성 행복일자리에는 보육 인프라와 여성창업 기반 구축, 안전 안심보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집중을 통해 도내 출산율 제고와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이 먼저 나서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선제적 예방행정 일자리도 한층 구체화시켜, 동해안 관광 해양 자원 보호와 산림 병해충 방역 특공대, 호재민-경주 EXPO 등에 8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근 주4일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와 도내 화장품 기업 사례 등이 함께 보고돼 의미를 더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현재 주4일 근무제 4명에 대한 채용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2명 추가채용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이창원 교수는 도가 경안에 조성중인 '경북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최근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 올해 말까지 총 21개 기업에서 주4일 근무제로 5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경북도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주4일 근무제'가 도내 기업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앞으로 도내 경제단체 등과 연계해 민간 분야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청년 실업이 내란인 상황을 감안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고, "어렵게 마련한 종자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고, 이러한 분위기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남형기 기자

2001년 3월 15일 창간	아시아일보	등록번호 가-205호(일간) 2000년 11월 22일
발행·편집인: 권희민 편집국장 겸 총괄상무: 김용수 인쇄인: 현재오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99 스타빌 1304호 Tel. (02) 588-2996 / FAX (02) 855-8784		
편집국 (02) 588-2996 편집부 (02) 588-2996 정치부 (02) 855-8781 경제부 (02) 855-8782	사회부 (02) 855-8783 문화부 (02) 855-8781 광고국 (02) 855-8782 총무국 (02) 855-8783 고충처리위원회 (02) 855-8781	제2사회부 (02) 855-8783 문화부 (02) 855-8782 독자재모 (02) 588-2996 광고문의 (02) 855-8782
E-MAIL: nasiai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asia일보.co.kr 구독료 1만5천원/1부 7000원 본지는 언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지킵니다.		

올해의 불서 선정 도서

260자에 담긴 삶의 지혜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반야심경을 만나면 진리에 대한 안목이 활짝 열리고, 삶이 행복과 자유로움, 희망과 경외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법상 지음 | 352쪽 | 14,500원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인천 남구 최초 더샵 브랜드 '인천 더샵스카이타워' 건본주택 오픈

전용면적 74·84m², 지하 4층, 최고 49층, 11개동, 총 1897세대 구성
4Bay 판상형 구조로 주상복합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환기문제 해결
5·7블록 중복청약 가능...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청약접수 시작
인천 도화 랜드마크 라이프스타일센터 '엘리웨이 인천'으로 원스톱라이프 실현

포스코건설(대표 한창건)은 18일 (금) '인천 더샵스카이타워' 건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 더샵스카이타워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도시개발구역(이하 도화지구) 상업용지 8-5, 8-7블록에 지하4층~지상최고 49층, 11개 동, 총 1897세대 규모로 전량 일반공급 된다. 공급되는 면적은 100% 중소형으로, 전용면적 기준 ▲74㎡ 876세대 ▲85㎡ 1021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주상복합 입에도 불구하고 전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다. 주방창문과 거실창문이 마주보고 있어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주상복합의 최대 골치거리였던 환기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인천 더샵스카이타워 인기는 이미 현장전망대를 통해 증명됐다. 현장전망대에서는 현재모습과 가상체험을

통한 미래 모습이 확연히 보일 정도로 후 무려 78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도화지역에서는 10년만에 신규분양 되는 아파트라는 기대감과 인천이 8·2부동산 대책 규제에서도 벗어나면서도 탈하우스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가 공급될 도화지구는 인천 원도심 개발사업 첫 프로젝트로 행정, 교육, 주거복합형 도시를 목표로 개발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도화지구 내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인천합동정부청사가 개청 예정에 있어 인천을 대표하는 행정 지구로 변모가 기대된다.

인천 더샵스카이타워는 개발구역 가장 맨 앞에 위치해 최고 입지를 자랑한다.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도 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도화IC와 가좌IC가 3km

이내 위치해 있어 서울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주변에 3개의 대학교와 1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는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로서의 기대감이 높다. 인천 도심권 내 첫 '더샵'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최고층 49층 높이를 인천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Alleyway(엘리웨이)'라는 브랜드의 상업시설 조성 예정으로 원스톱주거 라이프가 실현 가능한 전망이다.

신개념 라이프스타일센터 '엘리웨이 인천'은 일반분양분을 최소화(35%)하고 마스터리스와 통합운영관리, 직영론점 도입 등 기존 상권과는 차별화된 '상업시설 활성화' 시스템이 적용된다. 우선 수분양지는 계약과 동시에 시행사와 마스터리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향후 5년 간

공실리스크 없이 확정 임대료(분양가액의 연 5%)를 지급 받는다.

사업주체인 네오밸류는 자체 보유분(65%)과 마스터리스(35%) 상가 전체에 대해 체계적인 MD 구성과 PM(자산관리, 임대), FM(시설, 안전, 미화, 주차) 및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하며, 특히 자체 보유 상가에는 15년 임대차 계약이 확정된 CGV를 비롯해 SSM과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등 집객력 높은 앵커테넌트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니어미아비와 밀도 등 자체 브랜드 운영도 예정됐다.

'오모데산도힐스, 긴자식스' 등 랜드마크를 건설해온 일본 글로벌 부동산기업 '모리빌딩도시기획'과 네오밸류가 합작해 진행하는 특화된 상업시설 설계도 눈길을 끈다.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센터 조성을 위해 자충부에는 대면상가와 인도어 쇼핑몰이 결합된 광장형 상가가 선보이며 2층과 3층

에는 테라스 타입의 판매시설이 구성됐다. 또 아파트와 상가 이용객은 전용 주차공간이 분리되어 제공되며 친환경 휴식공간과 순환동선을 통해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고객은 물론 20~30대, 40대 이상 모든 연령층 모두가 쾌적하고 여유로운 웰빙 쇼핑과 여가생활, 휴식 등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분양은 5블록, 7블록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각 블록별 동일타입 접수도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건까지 중복청약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9월5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건본주택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12번지(인천시청 인근)에 위치하며, '엘리웨이 인천'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32 비전타워 15층(인천시청 인근)에 위치한다. ■배용환 기자



'인천 더샵스카이타워' 조감도.



'엘리웨이 인천' 조감도.

LG전자, 서울 논현동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 열어

국내 업체 최초 초프리미엄 빌트인 전시관

LG전자가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초(초)프리미엄 빌트인 전시관을 선보이며 빌트인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낸다.

LG전자는 17일 빌트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논현동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을 오픈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오픈 행사에는 H&A(Home Appliances&Air Solutions)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 쇼룸 디자인에 참여한 세계적 건축가 '톰 메인(Thom Mayne)',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직접 구매해 사용 중인 배우 김성령 등이 참석했다.

국내 첫 초프리미엄 빌트인 전시관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은 총 1,918㎡ 규모로 지상 5층, 지하 1

층이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로 구성된 다양한 명품 주방 공간 패키지와, 고객이 실제로 최고급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다. LG전자는 연간 1만 명 이상의 빌트인 고객들이 쇼룸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LG전자는 쇼룸 내에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LG SIGNATURE)'도 전시, 쇼룸 방문객들에게 일반 가전(프리스탠딩)과 빌트인 각각의 초프리미엄 브랜드를 함께 선보이며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은 국내 첫 초프리미엄 빌트인 전시관인 동시에 LG전자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빌트인 가전 전문 전시관이다. LG전자는 기존까지 IG베스트

샵 강남본점 등 거점 매장 몇 곳에 빌트인 가전을 전시했다.

LG전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대 빌트인 시장인 미국에도 내년 상반기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을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 쇼룸을 통해 가전, 가구를 모두 아우르는 토탈 주방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빌트인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쇼룸 내부를 '생활이 예 술이 되는 공간'을 주제로 연출하기 위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al Prize)'을 수상한 미 건축가 '톰 메인(Thom Mayne)'과 손을 잡았다.

1층의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브랜드 갤러리에 들어서면 2층 높이의 거대한 공간에 웅장한 조형물인 아

트월과 '쿠킹 클라우드'가 반긴다. 메탈 소재로 꾸며진 아트월에는 리얼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의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들이 견고하고 웅장한 느낌을 자아낸다. 톰 메인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스팀을 형상화한 '쿠킹 클라우드' 조형물은 갤러리 공간을 은은한 조명으로 채워준다.

갤러리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톰 메인이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에서 받은 영감을 주방 디자인에 반영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X 톰 메인 키친'이다. 톰 메인은 리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마감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에 걸맞게 모든 가구를 블랙 색상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해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풀 스테인리스 주방 공간을 선보였다.

LG전자는 국내외 명품 가구 업체와도 협업해 빌트인 가전과 주방 가구를 모두 아우르는 토탈 주방 공간 솔루션을 제공한다.

쇼룸 3층에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활용한 명품 주방 패키지들이 있다. LG전자는 독일의 최고급 주방가구 '포겐폴(Poggenpohl)', 이탈리아의 유명 가구 브랜드 '다다(Dada)', 한샘의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키친바호'와 함께 각각 △클래식한 느낌의 전통 아메리칸 스타일, △심플하고 모던한 유럽 스타일, △내추럴 동양적인 스타일의 주방을 선보였다.

쇼룸 5층에는 LG전자의 가전 제품과 LG하우시스의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를 함께 전시한 'LG하우시스 프리미엄관'이 있다. 한국 실내건축가 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건축가 최시

영씨가 주방뿐 아니라 거실, 침실, 정원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주거 공간을 선보였다. 또 LG전자의 지하 1층에 일반 빌트인 LG 디오스 빌트인(LG DIOS Built-in) 가전과 '한샘'의 여러 주방 가구 패키지를 함께 전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방문객은 전문 디자이너에게 주방의 크기와 구조에 맞춰 프리미엄 가구와 LG 빌트인 가전을 활용한 공간 디자인은 물론, 설계부터 시공까지 토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유명 셰프로부터 직접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쇼룸 4층에 별도로 마련했다. 고객들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LG 디오스 빌트인'으로 구성된 주방에서 이재훈 셰프 등 유명 요리사들로부터 요리를 배우면서 요리를 만들고 같은 층의 룸에서 만든 요리를 즐길 수 있다.

국내 빌트인 가전 시장은 지금까지 건설사 또는 가구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6천억 원 규모의 전체 시장 가운데 B2B 시장이 80%가

량을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최근 거주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주방을 연출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빌트인 제품은 패키지로 구매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빌트인 가전 제품의 성능 및 내구성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LG전자는 주방 공간에서 냉장고, 오븐, 쿡탑 등 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전 패키지에 맞춰 가구를 선택해 주방을 리모델링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춰 LG전자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고 LG전자만의 차별화된 빌트인 가전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가전업체가 국내 빌트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패러다임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창은 기자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박람회 / 한글 인터넷 주소 : 동아전람

관람안내

제45회 MBC 건축박람회

- 300여 업체(3천여 아이템 전시) -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전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KINTEX(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기간: 8. 24(목) ~ 8. 27(일)
- ◆장소: KINTEX (킨텍스 제1전시장) ※지하철 3호선 대화역
-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토·일요일도 동일)
- ◆주최: MBC
- ◆주관: 동아전람 www.dong-affairs.co.kr
- ◆전시품목: 건축자재 / 인테리어 / 전원주택 / 조경 / 냉·난방기기 및 건축설비기자재 / 조명 / 차량·창호 / 건축정보 / 건축·주택관련제품 ※ 전원주택 시공·분양 특별상담 코너

◆관람문의: 동아전람 Tel. 02)780-0366

▶오시는 길: KINTEX (킨텍스 제1전시장)

- ◆지하철
 - 도로: 3호선 대화역 2번 출구에서 아파트 사이길로 직진(10분소요)
 - 버스: 3호선 대화역 5번 출구에서 039, 082, 089, 9700, 8109, M7106 버스이용
- ◆승용차
 - 울림빅대로-가양대교남단-가양대교북단-강변북로-자유로-킨텍스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자유로분기점(일산방향)-자유로-킨텍스C
- ◆버스
 - 강남(양재역): 9700 서울역-광화문-신촌: M7106,1000,1100,2000,9714,707 신촌역: 72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66 롯데백화점점점: 9701 / 합정역: 200 인천터미널: 3000 / 인천공항: 7400(공항리무진), 3300 당산·영등포: 9707, 870, 1500 김포공항: 7300(공항리무진), 150, 56 일산지역: 도시행(88) 마을버스 (039, 068, 062, 082) 부천: 1001 / 김포: 33, 97 성남: 분당: 8109 / 군포: 금정: 8407

▶ 다음 박람회 안내

- ◆ 제2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 기간: 9월 22일 ~ 24일
 - 장소: SETEC
- ◆ 제3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 기간: 10월 20일 ~ 22일
 - 장소: aT Center
- ◆ 2017 부산 건축박람회
 - 기간: 11월 23일 ~ 26일
 - 장소: 부산벡스코

동시개최 2017 동아 냉·난방 및 건축설비 박람회

전국 31개 산란계 농장 부적합 판정

적합판정 농가 계란 시중 유통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17일 0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합판정을 받은 857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은 시중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전체 계란 공급물량의 86.5%에 해당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신규 25개 농가 포함 총 31개 농가(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 포함)이며,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성분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피프 로닐 7건, 비렌트린 19건, 플루페뉴

수른 등 기타 3건 등이다.

또한 검사완료 농가(876)중 60개 농가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했고 부적합 농가는 25개 농가이며,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반한 농가는 35개 농가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가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다.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친환경 기준만 위반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 표시 제거 등을 통해 일반 제품으로 유통 가능하다.

■송수안 기자

광화문광장, 300미터 워터 봅슬레이장으로 변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홍보관·K-POP 가수와 인기 DJ 음악 공연 등 축제의 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약 6개월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강원도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평창대회의 성공을 염원하는 대규모 여름이벤트를 펼친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해 4만 명의 시민들이 즐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도심 속 봅슬레이(BOBSLEIGH IN THE CITY)' 행사를 평창올림픽조직위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심 속 봅슬레이' 행사는 300미터 초대형 워터슬라이드, 2018 평창대회 홍보관, K-POP 가수와 인기 DJ 음악 공연, 음식축제로 구성되어 광화문광장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워터슬라이드는 광화문광장 서쪽 세종대로에 길이 300미터, 높이 22미터로 설치되며, 봅슬레이 모양으로 특수제작된 1인용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놀이시설이다.

워터슬라이드는 이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2시간 운영 후 30분 간 휴식하는 1일 5세션(2시간/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을 위해 1세션당 탑승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하고, 이를 동안 총 130cm 이하의 어린이는 탑승할 수 없다.

워터 슬라이드는 무료로 운영되며 탑승권(티켓) 소지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티켓은 온라인 사전 예약과 현장 배포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네이버 공연'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며, 현장 배포는 행사 당일 광화문광장 티켓 부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현장 티켓은 당일 세션에 한하여 배포되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각 세션별 시작 1시간 전부터 배포한다. 즉 1세션은 오전 9시부터 배포하고, 5세션은 오후 7시부터 배포한다.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키즈풀, 대형폴도 설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 탈의실, 물품보관실, 그늘막, 썬베드, 화장실도 설치한다.

광화문광장의 동쪽 세종대로에는 푸드트럭이 설치되어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파트너인 KT, 노스페이스, EF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초대형 슬라이드를 설치해야 하므로 행사 전날인 18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광화문광장 서쪽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550m 구간)의 차량운행이 통제된다. 행사 당일인 19일 0시부터 21일 오전 6시까지의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양방향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과 차량들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평소 세종대로를 지나던 33개 노선 버스들도 행사기간 중에는 우회 운행하고 광화문 ↔ 세종대로 내 시내버스 정류장 5개도 폐쇄된다. 버스를 이용하려면 광화문(동화면세점 선출입구)로 구성된 '일팩트', 비눗방울 쇼 '버블 드래곤', 타악 퍼포먼스 '타악동'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도 진행된다.

■박정남 기자

평창 패럴림픽 입장권 21일부터 온라인 판매 돌입

가격 평균 3만원...11월 6일부터는 오프라인 판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7일 "내년 3월9일 개막해 10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과 각 종목별 입장권을 대회 개막 G-200일인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조직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는 알파인스키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휠체어 컬링 등 6종목, 80개 세부종목에서 모두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된다.

입장권은 총 28만매를 발행해 국내 70%, 해외 30% 목표로 판매될 예정이다. 종목에 상관없이 최대 1인당 50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개회식은 좌석 등급별로 A석 14만 원, B석 7만원, C석 3만원이며 폐회식은 1만원에서 7만원까지로 책정됐다.

종목별로 알파인스키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는 각각 1만 6000원이다.

아이스하키와 휠체어컬링은 예산과 준결승, 결승 등으로 구분해 최저 1만원에서 5만원까지로 구성됐다.

조직위는 "평창 패럴림픽 입장권의 평균 가격은 3만원이고, 전체 입장권의 50%는 2만원"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정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1~3급), 경로자(65세 이상), 청소년, 개최도시 주민에게는 50%의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정부기관,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 단체는 30% 할인

을 받을 수 있다.

개·폐회식(A, B석)과 아이스하키 결승(A석)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판매에 이어 오는 11월 6일부터는 메인티켓센터(서울시청, 강원도청, 강릉시청)와 아울렛 판매점인 인천·김포공항과 서울, 용산 등 19개 KTX역에서도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장권 소지자는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창 올림픽파크, 강릉 올림픽 파크와 연계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전 세계 50여 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대회기간 중 2만 5,000여 명의 IPC패럴림픽과 보도진, 65만명의 관중이 대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민 기자

서울시, 세계 최초 '수소전기하우스' 무료 운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면 수소 전기에너지로 집안의 모든 전기제품이 작동하는 '미래의 가정' 모습을 AR(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고 수소전기차도 직접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미래 대체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아직 미개척 분야인 수소전기에너지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친환경 정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수소전기하우스'를 한강 여의도공원 주차장 옆(마포대교 남단동측)에 조성해 3개월(8월17일~11월17일)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에너지 체험공간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다.

시는 그동안 '원전하나 줄이기'를 비롯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정책들을 선도해왔다. 이번 수소전기하우스를 통해 수소에너지가 공해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과 미래 에너지를 통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쉽게 알리고자 체험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수소전기하우스는 가로 34m, 세로 6.8m, 높이 2.7m 규모이며, 이동형 모듈러세트로 제작됐다. △에너지 발전 존 △하우스 존 △대체에너지 존 △수소전기차 존 등 총 4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에너지 발전 존'에서는 수소전기(차)의 발전원리, 특·장점에 대해 알 수 있다.

'하우스 존'에서는 에너지 발전 구동에 대한 동작 시연, 공기청정존 운영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체에너지 존'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며 시민 브랜드 'I·SEOUL·U'

탄생과정과 성과 등을 함께 홍보한다.

'수소전기차 존'에서는 수소전기차를 관람 할 수 있다.

특히 '미래의 가정' AR(증강현실) 존에서는 에너지 전문해설자가 수소에너지 생성원리를 설명한다. 관람하는 동안 관람객들은 전시공간 내에서 발생한 전력량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수소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를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과학실'도 함께 마련돼 아이들의 체험 교육 장소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화~목, 일요일 11:00~21:00, 금~토 11:00~22:00이다. (월요일/추석연휴는 휴무) 자세한 내용과 사전예약 등은 '아이스서울' 홈페이지(www.h2hous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남 기자

환경부 "전기차 공용완속충전기 크게 늘린다"... 전기차와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 충전기 설치를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차량 이동 중의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되어 왔으나 앞

로는 이와 함께 속박시설,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해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

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

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18일부터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

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추경)되어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올해는 추경예산 반영으로

1,076기가 설치될 계획으로 올해에만 충전여건이 작년 대비 40% 이상이 개선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차별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8월 1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과 '전기차 충전소 사이트'에 공개한다.

■송수안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이용길(430604-1031311, 2017년 1월 21일 사망, 서울 노원구 동일로193길 7, 101동 1507호 (공릉동, 공릉2차신도브레뉴아파트))의 법정상속인 1.양미자 2.이상호 3.이상무 4.이상국은 위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하고자 서울가정법원 2017년 8월 4일자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이용길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분은 본공고제척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그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사실을 민법제 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한정상속인 : 1.양미자 2.이상호 3.이상무 4.이상국
채권신고장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198가길 13, 404동 1008호 (공릉동, 삼익아파트)



안내 광고

광고문의

TEL : (02) 753-1134, 776-1726

FAX : (02) 753-1447

아시아일보 asiailbo.co.kr

기술금융의 시대가 열립니다!

혹시 당신의 기업,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기술신용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비롯한 금융기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숨은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중소·중견기업 자원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기술금융! 대한민국 창조경제 실현의 원동력입니다.

- 기술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기술신용평가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보도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기업금융나눔톡 홈페이지(http://www.smefn.or.kr)를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 한국정책금융공사 02)6922-6800, 6893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KofC KOREA FINANCE CORPORATION

동대문구,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지역·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 區 정책에 적극 반영

동대문구가 지역경제의 발전 동력인 숨은 일자리발굴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집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자는 지역,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내용은 △ 청년 창업 및 창업과 연계한 일자리

△한방산업·전통시장 등과 같은 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동대문구 특화형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신중년·어르신 일자리 등으로 동대문구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기술해 응모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식을 구 홈페이지(www.ddm.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공모기간 내에 이메일(manito12@ddm.go.kr) 또는 구 일자리창출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10명의 심사위원들이 창의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상금 50만원), 장려상 1명(상금 30만원) 노력상 7명(상금 10만원)까지 총 10명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는 10월 중으로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동대문구 일자리창출 정책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수요와 밀접하고 현실적인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반영해 민관이 함께 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관 기자**

금천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조사원 표본가구 직접 방문

금천구가 오는 10월31일까지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파악해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건강정책을 펼치는 데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관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 및 관리수준, 삶의 질 등 총 19개 영역 236개 문항을 조사한다.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조사원이 선정 가구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와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이 지급된다. **■김용수 기자**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파악해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건강정책을 펼치는 데 활용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별로 꼭 필요한 보건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 조사다. 구 관계자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도봉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 실시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조기발견 및 중증화 예방

도봉구는 점점 증가하는 노인인구수에 비례해 급증하고 있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을 위해 직접 고위험군 어르신이 계신 각 동, 노인복지관, 복지센터 등 교시설 등 지역 내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을 진행한다. 치매의 경우 고령일수록 발병 확률

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오는 9월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치매예방검사와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예방검

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보일 경우, 치매지원센터에서 정밀검사 및 전문의 진료까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도봉구치매지원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치매검사를 진행하고, 상시 상담 및 검진 등 숨어있는 치매환자 발견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관 기자**

성동힐링센터 영월캠프서 늦여름 더위 식히고 초가를 정취 만끽

바쁜 일상으로 아직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늦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초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강원도에 위치한 성동힐링센터 영월캠프를 추천한다. 성동구가 강원도 영월군에 운영중인 '성동힐링센터 휴(休) 영월캠프'가 성동구민의 휴식공간이자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인기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극성수기인 7~8월 여름 휴가기간에는, 특히 인기가 많은 펜션동·글램핑장의 예약률이 97%(350객실 중 340객실 판매)에 이르는 등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성동힐링센터 휴(休) 영월캠프는 성동구민뿐 아니라 타지역 주민도 이용가능하며 문화 및 여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주민 복지시설로 지난해 7월15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에 개장했다. 문산리 폐교 부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시설로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지난 1년간 성동구민을 비롯한 타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김용수 기자**

영월캠프의 가장 큰 인기 요소 중 하나는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성동구민의 경우 △편선형 숙소(26㎡) 성수기 주말 4만원, 비수기 3만원 △글램핑장 2만원 △캠핑장 1만원, 타 지역 주민은 같은 공간을 각각 5만1,000원, 3만4,000원, 1만7,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TV, 오디오, 냉장고 등 모든 집기류가 구비된 글램핑장과 텐트를 설치·철수하는 수고로움 없이 최신식 텐트가 상시 설치되어 있는 캠핑장 등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춰 알뜰 여행객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다. 성동 힐링센터 휴 영월캠프는 지난 1년간 약 1만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한 바 있으며, 특히 한 번 방문했던 이용객들의 재방문율이 무척 높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양00 씨는 "7월 첫주에 가족들과 글램핑장을 이용했는데 이번 방문이 두 번째로 성동구민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있는 곳이다. 현장 직원들도 무척 친절하고 영월캠프 전반적으로 가격에 비해 시설이 훌륭해 가족 모두가 200% 만족한 여행이었다."고 말했다. 성동 힐링센터 휴 영월캠프 예약은 성동구민은 매달 1일 오전 10시부터, 타지역 주민들은 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객실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은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장 1년차를 맞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성동 힐링센터 휴 영월캠프가 영월 지역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관 기자**

양천구, 악성·고질 민원 대응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 시행

직원보호 및 고충민원 대한 행정력 낭비 막아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지난 5월 양천구 000동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던 중 업무처리에 불만을 갖고 담당직장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상해를 입은 공무원은 외상 및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했다. 양천구는 악성·고질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악성·고질 민원 발생 시 공무원이 현장에 고문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악성·고질 민원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인력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민원인의 막무가내식 폭언과 폭행으로 동주민센터 공무원들

은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상적인 민원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구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직원들은 고충민원에 과다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했다. 따라서 구는 서울시 최초로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을 시작했다. 악성·고질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동)장은 구청 법무팀에 고문변호사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민원을 △폭언, 폭행

등으로 경찰서 지구대 등에 조사(예정) 중인 민원 △정당한 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담당자 등을 민·형사 고발한 민원 △동일·유사민원을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해 의도적인 업무방해, 괴롭힘 등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자칫 공무원의 과도한 대응으로 비취질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악성·고질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동)장은 구청 법무팀에 고문변호사의 동행을 요청한다. 법무팀에서

는 고문변호사를 배정하고 현장지원과 자문을 의뢰한다. 고문변호사는 즉각 현장출동을 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악성·고질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에도 일부 악성·고질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오히려 선의의 주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폭언 및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여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 또한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수 기자**

마포구, 한강공원 망원지구 내 '토요 한강 건강상담실' 운영

한강 산책을 나선 시민들이 건강 점검도 받고 운동까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마포구 한강 시민공원 망원지구(성산대교 북단 밑)에 건강 측정과 상담,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장 건강상담소 '토요 한강 건강상담실'이 그곳이다. 구는 마지막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23일까지 집중건강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토요 한강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통합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한강에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토요 한강 건강상담실'은 지난해 1,525명이 상담받을 만큼 큰 인기를 끈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 대사증후군 검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부터 치매 및 우울증검사와 상담 등 건강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마포구 보건소 직원과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상주한다. 시민들은 누구나 이곳을 방문해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등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1대1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가 검사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한강 이용 주민 중 가벼운 외상을 입은 주민을 위해 긴급 처치도 병행한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힐링체조운동 프로그램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스트레스·우울 상담서비스, 치매지원센터의 치매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자가 그려주는 캐리커처 얼굴 그려주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한다. 건강상담실은 마포구민 뿐만 아니라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집중운영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9월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단, 기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편, '토요 한강 건강상담실'은

2013년 개소 후, 현재 까지 총 78회 운영됐으며, 총 7,048명이 다녀갔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토요 한강 건강상담실에서 건강체크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면서 심신이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과 연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방법을 찾아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언제나 내 곁에

우체국 보험

이웃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우체국보험,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마포구, 주민참여형 생활문화예술사업 추진

‘꿈의 무대’ 연극·합창·오케스트라·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 숨은 재능 발굴 역할 톡톡

마포구와 마포문화재단은 일상생활에서 주민 모두가 예술을 경험하고 문화를 통해 숨겨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꿈의무대’는 연극, 음악, 무용 등 전문성을 갖춘 지도강사의 도움으로 숨은 재능을 개발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꿈의무대’는 ‘꿈의극단’, ‘꿈의합창단’, ‘꿈의무용단’, ‘꿈의오케스트라’, ‘꿈의밴드’, ‘꿈의카니발’, ‘꿈의전시’ 등 총 7개 장르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마포 지역에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들이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예술 전문가와 협업해 공연무대를 올릴 수 있도록 ‘꿈의극단’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으로는 마포지역을 기반으로 연극 활동한 경력이 있고, 창작 작품으로 공연장에서 공연 가능하며, 2017년 ‘꿈의극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연극 동아리나 커뮤니티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5개 연극 동아리(또는 커뮤니티)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은 무상으로 공연장을 사용하고, 공연예술 전문가와 협업하여 무대를 준비할 수 있다. 공연기간은 10월30

일~11월2일 또는 11월6~9일에 팀당 1회로 사용 가능하다. 공연장은 흥대에 있는 포스트극장에서 이뤄진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1일 오후 5시 까지 (재)마포문화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문화재단 ‘꿈의극단’ 담당자에게 전화(02-3274-853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이웃이 무대 위의 화려한 공연자가 되어 합창의 진수를 보여주는 ‘꿈의합창단’ 무대가 오는 30일, 10월25일 저녁 7시30분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백에서 개최된다.

작은음악회 ‘Sound of MAPO’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는 마포OB합창단, 합정누리합창단, 공덕하모니합창단 등 실력이 우수한 6개 합창단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 닦은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대리 유희와 성악가들로 구성된 ‘토이토이클래식앙상블’을 비롯해 ‘로고스앙상블’, 바리톤 ‘석상근’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하기 위해 열리는 작은음악회 ‘Sound of MAPO’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여러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천원에 즐길 수 있는 ‘천원의 문화공감’, 주부 및 중장년층을 위한 소규모 콘서트 ‘살롱 드 마포’ 등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때 주민들의 정서가 풍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내면이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도봉구 ‘창동역 희망장터’ 개최 중고물품 판매·체험부스 등 다채

도봉구는 오는 26일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창동역 희망장터’를 개최한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개최되는 ‘창동역 희망장터’는 도봉구 민간자원봉사단 협의회가 주관하고 도봉문화공감센터(한국마사회) 등 지역 내 기업이 후원하며 동 자원봉사캠프, 학부모봉사단, 아파트봉사단, 청소년동아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도봉구의 대표적 베품시장으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자율 기부하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오는 26일 개최되는 희망장터에는 청소년과 가족 단위 300여 팀이 중고물품 판매에 참가하며, 짜장면과 떡볶이, 부추전, 솜사탕, 팔방수 등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풍선아트, 네일아트, 천연비누 만들기, 인화화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놀이 99초 미션, 정오의 희망라디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기획해 참가자들에게 재미와 나눔의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정장은 “희망장터를 통해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로까지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장터 참가 신청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상관 기자

강북구, 역사·문화·관광 스탬프 힐링투어 실시

국립4·19민주묘지 등 6개 대표 명소들 볼 수 있어 모두 날인 후 제휴업소에 제시하면 음식 값 등 할인

강북구가 오는 21일 근현대사기념관과 국립4·19민주묘지, 순국선열묘역 일대를 묶어 만든 강북구 역사·문화·관광 스탬프 여행 ‘너랑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를 시작한다.

구는 9월2일 우이신설 도시철도 개통에 발맞춰 ‘강북구 역사·문화·관광 스탬프 힐링투어’를 운영해 강북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역사·문화 체험과 건강을 함께 선물할 예정이다.

스탬프 힐링투어는 강북구의 주요 역사·문화·관광 스탬프 힐링투어는 강북구의 주요

트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국립4·19 민주묘지를 시작으로 순국선열 16위 묘지가 있는 초대길을 지나 근현대사 박물관, 소나무 쉼터,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강북구의 대표 관광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게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투어 코스에 있는 관광명소에서 응지를 배부 받아 구간별 4개의 스탬프를 모두 날인 후 제휴업소에 제시하면 음식값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제휴업소는 투어 코스 주변 음식점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미아점 내에 있는 업소들로 커피쿠폰 무료

제공, 식당가·세차장·체육관·미용실 할인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연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각 관광 명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방문객들에게 행사내용 안내 및 역사문화관광 해설을 진행한다.

또 스탬프 투어 참가자를 위해 근현대사기념관과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강북보건소와 연계한 ‘너랑나랑 우리랑 건강조은(ZONE)’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혈압, 체성분 및 개인별 맞춤형 영양·운동 등 건강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소나무쉼터에서는 강북구 응급의료교육장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하임

리히법(기도폐쇄 응급 처치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투어 후에는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홈페이지에 후기 작성 후 우수후기로 선정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김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이번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를 시작으로 강북구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러한 세부사업들을 정실시 시행해 나감으로써 역사문화의 고장 강북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역사·문화·관광 체험’과 ‘건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종로구, 동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행복학습센터’ 운영

종로는 그 어느 도시보다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종로구는 이렇듯 구가 가진 독특한 문화 자원을 활용해 ‘동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행복학습센터’를 8월부터 운영 하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이번 ‘행복학습센터’는 교육부에서 주최한 ‘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

해당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00여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집 근처에서 주민들이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목표를 세우고 동 단위의 학습센터 3곳을 중부권·서부권·동부권으로 나눠 지정했다.

‘행복학습센터’가 문을 연 곳은 관내 △가회동 북촌전통공방협의회의 (중부권) △부암동 환기미술관(서부권) △창신제3동 종로종합사회복지관(동부권)이다. 학습센터로 지정된 세 기관 모두 해당 동을 대표하는 사회·문화 기관들로 총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회동 행복학습센터는 가회동이 한옥, 전통 공방 등 전통 역사문화 자원이 많이 있는 지역임을 고려, 전통공방 및 한옥 등 전통적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역의

장인들을 강사로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다. 가회동 북촌전통공방협의회의 △금박 공예 △침선 공예 △전통 매듭 공예 △전통한지 공예가 양성 과정 △한옥 특강 △전통 목공예 등 전통 공예 기법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실제 생활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6가지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무형문화재, 기능전수자 등 장인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부암동 행복학습센터는 미술관과 예술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따라서 환기미술관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 △부암 화실 I-서양화 △부암 화실 II-사진 △부암모자 자녀가 함께 하는 미술로 마음 알기 △어르신 미술관 등의 강좌와, 부암동 소재의 미술관을 탐방해 보는 △부암동 문화 예술 산책 등 관련 프로그램을 5가지 운영한다. 강의는 환기미술관 소속 큐레이터가 진행해 내용의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창신제3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창신제3동은 복지관을 행복학습센터로 꾸려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어르신 서예 △어르신 종이공예와 △웃음 치료 △월대잉 준비 교실 △노후 준비 역량 교실 등 노년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5가지로 마련한다.

이성관 기자

관악구, 중개업소 정보 수록 QR코드 스티커 제작

관악구가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QR코드) 서비스’를 시행해 화제다. 이는 무등록 중개행위 차단과 부동산 거래문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서비스는 관내 중개업소 출입문 등에 QR코드를 부착,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중개업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고, 도로명주소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실거래가적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구는 “운영중인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와 이번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QR코드) 서비스로,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월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을 이용해 임차인의 권리, 피해시 대처 방법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김용수 기자

성동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무료로... 토요일도 OK

성동구 보건소는 개인맞춤형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오는 9월 1일 운영하고 있다. 검사는 사전예약 없이 검진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과 고혈압, 고혈당, 지질이상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태로 조기발견 및 적정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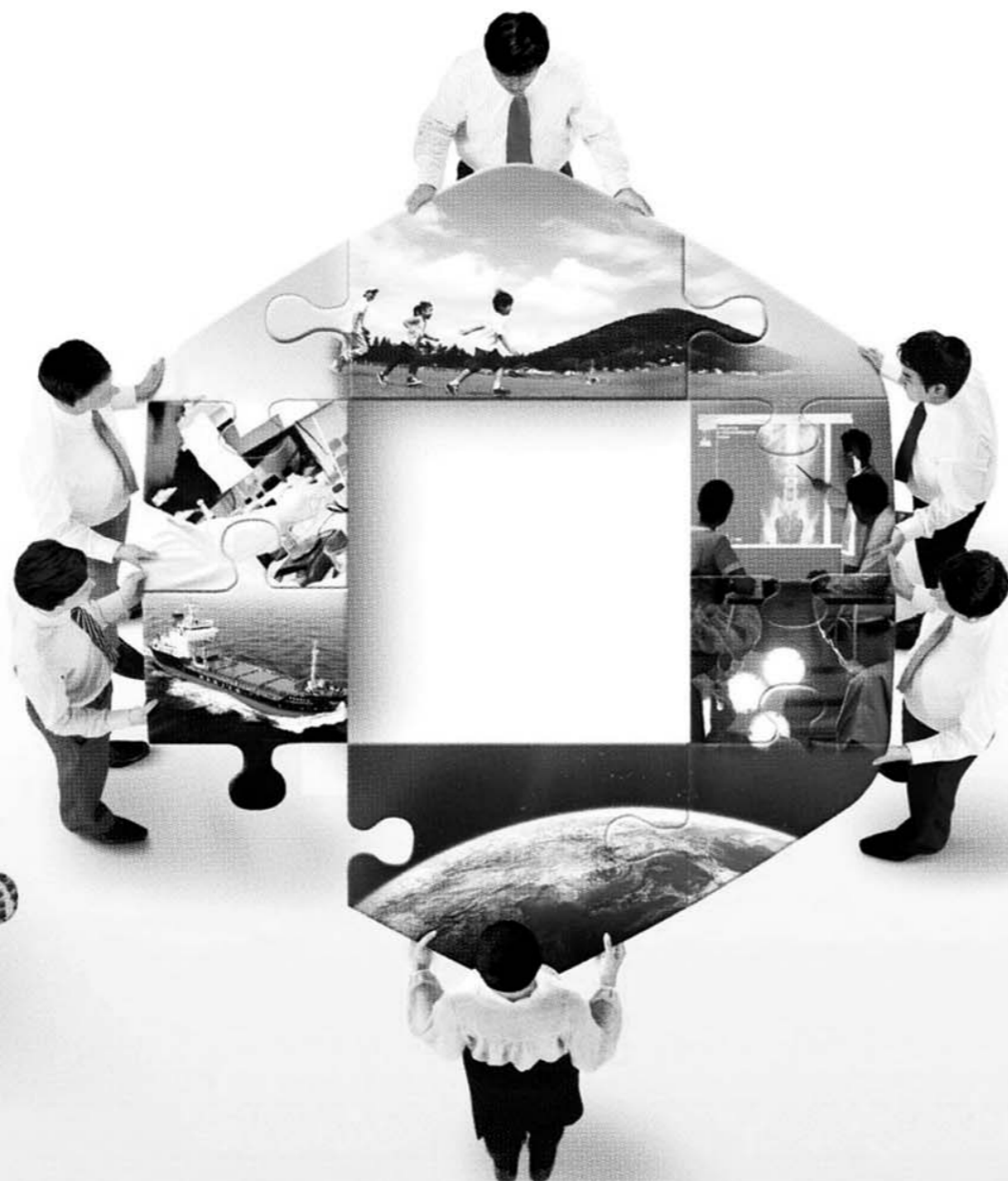
리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동구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는 건강검진을 시행해 결과에 따른 개인 맞춤형 영양 및 운동 상담을 시행한다.

만20세이상 64세 이하 성인이면 누구나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상관 기자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방사성폐기물” KORAD가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렇게 맑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렇게 깨끗하면 좋겠다
현재에서 미래까지 밝고, 맑고, 깨끗하게...
코라드의 바람입니다.

방폐물로부터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청정자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코라드의 약속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경기도내 메디컬 기업 10개사, 美 플로리다서 792만 달러 수출길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서 경기도관 운영

경기도내 메디컬 기업 10개사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총 202건 792만 달러 규모의 바이어 미팅과 79건 26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개최국인 미국은 물론, 개최도시와 인접한 중남미 지역 의료기기분야 전문바이어가 대거 참여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다. 경기도는 이곳에 경기도관을 구성하고, 도내 우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기업 10개사를 파견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시장상황을 확인하고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전략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연간 1,6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과 인구 및 소득 증가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무엇보다 중·대형 바이어와의 상담기회가 많아 참가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문양희 기자

가평군보건소 홀몸노인 건강개선 효과 만점

8개지역 은빛사랑채 경로당 방문 운영

가평군이 홀몸노인 중재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는 '은빛 사랑채'가 인지능력 개선, 우울증 감소 등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8개지역 경로당 1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빛 사랑채' 운영결과 홀몸노인들의 치매 등 인지능력이 55% 향상된 것을 비롯해 우울감은 6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평균 4만5천032원이었던 의료비 지출이 3만3천697원으로 줄고 의료기관 이용횟수 역시 월 4.22회에서 3.16회로 각 2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관리를 비롯해 우울감 및 자살 충동, 인지저하 등의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고자 방문간호사, 방문물리치료사, 치매사례관리사 등이 방문해 개별 건강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보건관계자는 "우리군 22.1%의 노인인구 중 29.3%가 홀몸노인으로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만성 및 노인성질환 통합건강증진사업인 회복건강마을 만들기에 홀몸노인 중재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동희 기자

양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리가족 스마트 휴 캠프'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임정숙)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양평 미리캐мп에서 '우리가족 스마트 휴 캠프'를 실시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문제 인식과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가족 갈등을 해결하고자 운영됐으며, 총 24가족 46명이 참여했다.



공재광 평택시장과 홍원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양 기관 간부공무원들이 정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항 발전·상호협의를 위한 하반기 행정협력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동부두 1번선석 연결도로 건설 등 4건 협력 요청

평택시(시장 공재광)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원식)은 지난 16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양 기관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하반기 행정협력회를 위한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평택시는 9월에 개최하는 평택항마라톤대회,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배출 저감사업, 서해대교 주변 친수공간 조성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항 추진입로

및 동부두 배후도로 이관, 동부두 1번선석 연결도로 건설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한 총14건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생협력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씩 실행을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재광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항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경기도, 경기평택항공사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

으며, 홍원식 청장도 "평택·당진항은 개항3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전국 5위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2회 개최하는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간 행정협력회는 양 기관의 심도 있는 논의로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회의가 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진태 기자

찾아가는 안성평생학습대학, 안성농업협동조합 강연

21일 조광 풍수지리학자 초청 '생활 속 풍수지리 이야기'

안성시는 오는 8월 21일 오후 1시 30분 찾아가는 안성평생학습대학 7회차 강연으로 미르풍수지리연구소 장 조광을 초청하여 '생활 속 풍수지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안성농협 주부대학(안성농협 지역문화센터 3층)을 찾아가 부와 건강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강연을 펼친다. 찾아가는 안성평생학습대학이란 지리적, 시간적 여건상 평생교육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시민(관내 관공서, 기업체, 단체 등)들에게 열린학습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하여 30인 이상이 모여 평생학습대학 희망강좌(건강, 교육, 웃음, 경제, 성희롱예방 등)를 신청하면 강사를 지원해 주는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연에서 조광 소장은 고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공간배치에 관한 지혜를 잘만 활용한다면 건강한 집,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며 그 원칙에 해당하는 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할 예정이다. 현재 조광 미르풍수지리연구소

장은 강원관광대학교 교수이며, 남이섬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설계하고, 롯데백화점호텔 109층 신축(부산 구포역)에 지문역할 및 전국 지자체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로는 '땅의 유혹' '좌정풍수백화' '토요명' '산을 알면 운명이 보인다' '나는 신명나게 살 운명이다' '땅의 아들'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안성평생학습대학 강좌를 희망하는 관내 관공서, 기업체, 학교, 단체 등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강사를 신청하거나 시청 교육체육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고 전했다.

편중국 기자

광복절 맞은 군포 청소년들의 애국 봉사투어

군포, 나라사랑 함양 현충시설 참배

군포시가 최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관내 청소년과 광복회(회장 신화승)가 함께 하는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현충시설 참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내 청소년과 광복회원 등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 등에서 진행됐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일제침략과 6·25전쟁, 월남전 등에서 활약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1955년도에 먼저 설립된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능력 한계에 따라 지난 1985년도에 추가로 마련된 곳이다.

참여자들은 먼저 현충탑에서 현화와 참배를 통해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이어 현충원 내 안치된 군포시 국가유공자 묘역에서 비석 닦기, 주변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과 역사감수성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군포시민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작년 5월 군포역 광장에 조성된 군포항일독립만세운동기념탑을 방문해 역시 참배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순형 복지정책과장은 "직접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해서 더욱 공감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의 애국심과 애환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나라사랑 함양 사업으로 매년 10개 보존단체 1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달에는 현충시설 내 독립선언문도 설치할 예정이다.

구중태 기자

성남 민원발급기서 일요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떴다

법원과 협업... 등기부등본·제적등초본 등 11종 발급 시간 제약 없애

성남시에 설치된 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그동안 평일과 토요일에만 발급하던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 시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협업 체계로 자체 확대해 8월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68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역별로 수정구 12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2대가 설치돼 있으며, 지하철역, 중·중심센터 등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있다. 성남시내 43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한 달 평균 4만884건(대당 951건)이다.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제적 등·초본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이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돼 많은 시민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그린PC' 사업 장면.

사랑의 그린 PC 290대 기증

김포, 기초수급자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김포시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그린PC' 290대를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업 및 단체에서 기증한 중고 PC를 PC정비센터에서 일괄 수집해 정비한 후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해 계층간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녹색 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

장 등의 개인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정보소외계층 집합 정보화교육을 월 10명 이상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기관이 해당된다. 이번에 기증된 PC는 경기도 사랑의 PC정비센터에서 새 단장을 마친 후 신청인(기관)에게 보급된다.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은 "사랑의 그린PC 기증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수원시 권선구

서호노인복지관서 영화 상영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필근)는 18일 서호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7 권선시네마' 두 번째 영화인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상영했다.

영화는 노년의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사랑 이야기로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영화를 본 어르신은 "오랜만에 좋은 영화를 보게 되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다.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이웃들이랑 보니 꼭 영화관에 나들이 온 것 같아 더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권선구는 이에 앞서 지난 9월에 중앙양로원에서 영화 '사도'를 상영했으며, 앞으로 고희공원 및 능실종합복지관 등 실내·외에서 2017 권선시네마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진태 기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파주 벤처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인프라 공간 제공... 예비창업자·1년미만 초기창업기업인 주로 이용

파주시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파주)’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계획으로 지난 해 5월 조성된 이후 인프라 구축과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으로 경기도내 성장단계 중소·벤처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경기남부와 북부간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은 지역적 불균형이 심했다. 이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파주시 금릉로84에 위치한 경기

벤처창업지원센터(파주)는 개방형공간 20석과 휴게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등록자수는 106명이며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초기창업기업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센터는 각 지역의 산업특성, 창업유형, 업종 등을 분석해 해당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입주형, 혼합형, 1인 창업공간, 개방형 등으로 조성됐다. 지난 해에만 11개 지역 신규센터를 개소했는데 경기 북부에는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 6곳을, 남부에는 테크노밸리 조성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파주시는 해마다 청년층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벤처

기업 보다는 중소 제조업체가 주류인 산업특성이 있다. 관내 청년층의 창업유도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료 개방형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비용부담 없이 아이디어 구상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관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활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에게 창업과 인큐베이션이 이뤄지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기술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Co-Working space와 교육지원, 창업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A씨는 1:1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성공했고 경기도의 창업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면서 1천5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파주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는 1인 소규모 입주형 사무실에 대한 요청 문의가 많이 왔다”며 “향후 현재 센터의 개방형 공간 일부를 1인 입주형(지정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며 관내 많은 이용자의 니즈에 맞춘 센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이 달 중으로 1인 지정석 운영을 위해 신청자

를 모집할 계획이다. 1인 지정석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www.gbb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3개월 단위(분기별)로 연장 가능하며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 지정석 이용자는 사업자등록주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이들에게 지원 사업을 통해 원부자재 구입, 외주용역개발지원 등 시제품 개발과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지원팀(031-908-97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 기자

광주, 태전지구 아파트 입주대비 버스 증차 등 교통난 해소 총력

광주시가 태전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교통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태전지구는 오는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금년말까지 총 5,000여 세대가 입주 할 예정으로 혼잡구간인 국도 43·45호선 공용구간의 지·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량 분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태전지구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광역교통 처리계획 용역’ 수립 결과와 내부검토를 바탕으로 교통난 해소방안 사전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교통량 분산 필요성과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7일 조역동 시장 주재로 ‘교통난 해소방안 대책 회의’를 열고 확정된 단기 및 중·장기 교통난 해소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교통난 해소방안

으로 태전지구 입주 시기인 9월부터는 지·담안교 하부 교량 신설 및 직리천변(태봉교~담안교) 일방통행 운영, 태전1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17호선 등) 및 고산지구 내부도로(중로1-17호선)를 조기 개설기로 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내~태전지구 순환버스 노선 3대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32번(광주시내~잠실역, 2대 증차) 및 32-1번(오포금호APT~모란역, 1대 증차)의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며, 1005번 버스와 660번 버스를 태전지구를 경유하도록 경로를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18년 말까지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앞(소로1-25의1) 도시계획도로 개설, 경안중학교~신장지사거리(중로1-13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영호 기자

평택,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오찬 간담회

평택시는 지난 16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효율적인 식품위생 감시체계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식품정책에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감시요령, 우수 사례를 공유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감시원의 직

무수행 활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소비자감시원 제도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계도,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계몽활동, 유통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 또는 자료제공,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등 다양한 식품위생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진 위생과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더불어 부정·불량식품 현장 감시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생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기자



구리시 인창동에서 열린 저소득층을 위한 훈훈한 이웃사랑 전달식에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리 인창동 ‘작은정성 행복나눔’ 저소득층 돕기 훈훈

바르게살기위·구인경로당·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백미, 밀반찬’ 전달

구리시(시장 백경현)인창동 주민센터(동장 이용순)에서 무더운 더위에 힘겨워하는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온정으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먼저 인창동 구인경로당 조성태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장진호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 담긴 사랑의 쌀 25포를 16일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한 사랑의 쌀은 국민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에게 개별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서 매년 소외된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행사를 꾸준히 실시 해 오고

있는 인창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조명덕)도 16일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을 위해 밀반찬 28상자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조명덕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도와주는 회원들과 앞으로 찾아오는 참 봉사를 위해 아름다운 실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순 동장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온정에 감사하며, 주민센터에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복선 기자

제20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29일까지 이천설봉공원 동문광장서 진행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열린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지난 8일 개막을 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이천설봉공원 동문광장에서 진행 중이다.

이천시(시장 조봉돈)는 심포지엄 부대행사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슨트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8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설봉공원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행사장 인근 미니갤러리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을 감상한 후, 심포지엄 참여 작가들 만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제작 과정도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작가 조각 동아리 ‘조각의 숲’에서는 참가

자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며, 체험도 할 수 있다. 직접 참여하여 조각의 매력에 빠져보는 색다른 경험이 기대된다. 제20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주제는 ‘땅위에 서다’로써 20주년을 맞는 심포지엄을 축하한다는 의미와 함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의지와 각오를 표현했다. 참여 작가로는 국내조각가 김병진, 김원근, 신한철, 지경수 작가, 국외 조각가는 아그네사 이바노비(불가리아), 히로유키 아사노(일본), 루크 즈울스만(호주), 콘스탄틴 티르티스키(우크라이나), 동슈빙(중국)작가 등 모두 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조병익 기자

하남버스 내부에 ‘성범죄 예방 경고 게시판’ 부착

하남경찰서(서장 조상현)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 일환으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하남버스 내부에 경고 게시판을 부착했다.

경찰은 KD운송측과 협의하여 하남에서 서울 도심 및 경기동부권으로 운행하는 270대 버스(이용객 일 15만명) 승강장 게시물을 탑승객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찰은 대중교통내에서 한건의 성범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익 기자

공감언론 **NEWSis.** ()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300여명의 국내 기자와
AP·로이터·신화사통신 등과 함께
지구촌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뉴시스 10년...’ ‘뉴시스 100년’을 위한 독자들과의 약속

늘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 언론’이 되겠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민원 언론’이 되겠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따뜻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비리에 눈감지 않는 ‘강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지구촌을 선도하는 ‘글로벌 언론’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시흥시, 귀농 활성화 업무협약

귀농 희망자 발굴 및 연계·조기 정착 지원 등 상호 협력

논산시(시장 황명선)와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17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도시민의 꿈을 응원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연대를 통해 실현 가능한 상생 모델 발굴을 위함이다.

△귀농·귀촌 희망자 발굴 및 연계 △귀농·귀촌 희망자의 조기 정착 지원 △농산물 직거래 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도·농연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양 도시는 교육, 영농정보 제공, 인적 교류 등 제반 협력과 인프라를 상호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도시 지역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학교급식 등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 자원 및 기술 교류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귀농 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농기술 및 지식 전수를 통해 관내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인의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3월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 2015년 귀농 귀촌지원종합 센터를 일원화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찾아오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유치, 정착 지원, 재배기술 지원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귀농 통계조사에서 충남지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승민 기자

현대오일뱅크 '무재해 선포식' 개최

현대오일뱅크(대표 문종박)는 지난 16일 공장 정기 보수를 앞두고 문종박 사장과 협력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대산 공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보수는 현대오일뱅크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51개 협력사에서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작업자를 투입하며 투자 금액도 약 3100억원에 이른다.

일산 28만배럴의 제2공장과 제2고도화 공정, 제1BTX 공정이 대상이며 오는 22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정규 공장은 2~3년에

한번씩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하며 설비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시행한다.

이 날 행사는 무재해 달성방안 선포, 결의문 낭독, 현장 안전상태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문종박 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아 작업자를 격려하고 직접 안전화를 신겨 주며 무재해 결의를 다졌다.

문종박 사장은 "정유 공장 현장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사상 최대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사전 준비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양진 기자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6일 공장 정기 보수를 앞두고 문종박 사장과 협력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대산 공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 참가한다.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충북도,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참가

김봉기) 주관으로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에 충북도는 '도 홍보관', '시·군관' 등 4개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11개 시·군 10개 업체의 50여종의 품목을 전시·홍보할 계획이며, '국내 유력 바이어 상담 주선', '친환경

제품 시식행사' 등 다양한 관촉활동을 전개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2017 오송 화장품뷰티 산업엑스포'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벌인다.

■박종민 기자

홍성군 화재 발생 식당 관계자, 소화기로 화재 진화

홍성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지난 16일 오후 2시경 홍성을 옥암리에 위치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를 식당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식당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조

리실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119에 신고 후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고 한다.

홍성소방서 대원이 현장 조사한 바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며, 가스 버너로 가열 중이던 튀김 냄비에서 화재 흔적이 발견됐다.

■김영래 기자

예산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 운영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 관리자가 선임된 일정 규

모 이상의 소방 대상물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행해 주는 업체에 의뢰해 많은 비용이 드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 창구를 운영하며 점검기구 무상 대여와 사용방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3~5일 간 사용 후 반납하면 된다.

■김영래 기자

독자투고

갑질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회적 화자가 있다면 바로 갑(甲)질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우리나라 모든 사회적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직, 사회적 기업 등 각종 직장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권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 유린을 스스로 없이 자행하는 내용의 기사들이나 언론을 보게 되면 자신조차 매우 흥분할 때도 있다. 갑질 횡포는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러한 점을 근절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만 해도 우리 경찰의 이미지도 갑질의 대표적 행위자로 중심에 있었지만 지속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수사 및 적법절차 준수를 권고하고 실천해 온 결과, 국민인권 및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청렴도는 과거 10년 전보다 상위에서 링크될 만큼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경찰에게 갑질 횡포를 하는 진상 민원들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쓰게 되며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자기 뜻대로 막연하게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경찰관에 대한 인권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며 경찰도 인권이 있는 고귀한 국가 시민

인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경찰 인력과 각종 관공서 직원, 각종 사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각자 자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갑질 횡포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하며 뿌리부터 근절시켜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항상 24시간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인권이 있으면 갑질을 당할 정도의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인권(人權)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개인적인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서산출대만지구대경장 유현진

예산군, 올해 첫 벼 베기 실시

황선봉 군수, 수확 현장 방문

올해 극심한 봄 가뭄과 집중호우 등 어려운 기상 여건을 이겨 내고 17일 예산군 고덕면 일원에서 충청남도 올해 첫 벼 베기가 실시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첫 벼 베기는 고덕면 지곡리 이명식(58) 씨의 논(면적 4958㎡)에서 실시됐으며 품종은 고품질 극조생종인 '조운벼'이다. 이명식 씨는 지난 4월25일 모내기

를 시작한 지 114일 만에 결실을 보게 됐으며 수확한 벼는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추석 햅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조운벼'는 이삭이 빨리 패고 밥맛도 우수한 특성이 있으며 추석 전에 햅쌀로 판매돼 가을 수확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벼 수확 후 밀이나 보리와 같은 작물을 재배해 경지 활용률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 날 벼 베기 현

장에 참석해 극심한 봄 가뭄을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벼를 생산한 농민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직접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낱알 상태를 살피는 등 첫 수확의 기쁨을 농민과 함께 했다.

황선봉 군수는 "예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쌀 산업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예산 쌀이 전국 최고의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 기자

홍성군, 무료 의료봉사 유공자에 감사패 전달

서울백병원 방문

김석환 홍성군수는 17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홍성군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원장(염호기)과 의료봉사단 팀장(박민구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홍성군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2005년 4월14일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군민을 위한 접수 창구, 전담직원 배치, 접수 진료절차, 수납 등의 개별 안내 제공 및 진료시간, 입원실, 구급차 우선 배정, 무료 진료, 건강교육 지원,

재해 및 수해 감염병 발생 시 의료진 파견 등의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 있다.

또한, 시행세칙 세부사항을 보면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하는 입원 진료비의 경우 선택 진료비(특진비) 10%,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중 MRI, CT, SONO도 10%, 종합검진 진단도 20% 감면의 혜택도 있다.

6월28일에는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만성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허리, 어깨, 무릎, 심혈관질환 등을 중점적으로 강좌 및 상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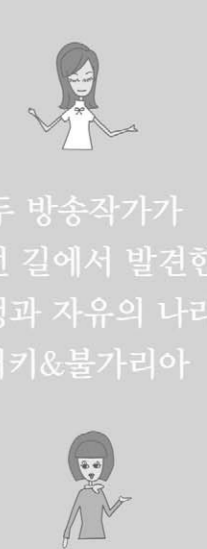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군민

들의 건강의식을 고취하는 등 무료 의료봉사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석환 군수는 "앞으로도 홍성군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손 잡고 군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종합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모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는 한편 홍성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래 기자



강기희, 박민아 지음 | 정가 14,000원
방송곡에 틀어박혀 밤낮없이 자판을 두드리며 대본을 써대던 30대 방송작가 카이와 미나가 작정하고 자유와 열정을 찾아 떠났다.
『꼭 한번 가볼만 한 터키&불가리아』는 이들이 낯선 길에서 발견한 풍경과 함께 맑은 우정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여자 둘이서 장기 여행하기 위한 6가지 팁을 비롯해 실속 있고 유용한 여행정보가 가득하다. 터키의 푸른 빛 열정과 불가리아의 붉은 빛 낭만이 당신의 가슴에 외칠 것이다. 이제 둘이 함께 떠날 시간이라고.

신안군, 23일 2017 소금박람회 개최

9개 테마관 109부스... 천일염 홍보·역사·체험·미용 및 치유관 등 '다채'

신안군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7 소금박람회'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개최되는 소금박람회는 9개 테마관 109부스에서 천일염 홍보, 역사, 체험, 미용 및 치유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운영되며, 천일염에 대한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건강한 소금! 국산 천일염'이라는 슬로건으로 천일염이 식품 활용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천일염의 중요성, 기능 등 생활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등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천일염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공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50개 부스에서 천일염 생산단체와 관련업체가 참여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량 구매·계약 및 명절선물 제품관로 개척을 위해 전시·판매관을 동시 운영해 천일염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통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어가 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한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소금박람회를 통해 천일염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소비시장 확대와 판매 촉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천일염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주 기자**

영광군, 2017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유소년 8인제 축구대회

영광군(김준성 군수)에서는 지난 17일 2017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가 개막됐다. 50여 개의 전국 유소년클럽축구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저학년 20개팀, 고학년 30개 팀으로 나눠 오는 23일까지 일주일 간 리그전으로 치러진다. 유소년 8인제 축구는 기존의 11인제 축구와는 달리 골키퍼를 포함 8명의 유소년들이 절반 크기의 경기장에서 마음껏 개인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 1종목의 스포츠를 권장하고 있고, 각종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영광군에서는 지난 17일 2017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가 개막됐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명문 유소년축구클럽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영광군을 방문한 선수단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목포해경, 2017 을지연습 준비 만전

'2017년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해경이 을지연습 기간 동안 해상치안 경계를 강화하는 등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18일 자체 준비보고회를 개최해 실제 발생 가능한 사태에 대비한 전시현안과제를 토의하고, 오는 23일 해상 난민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실제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

사태 발생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안보 위협과 대형 재난을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2017 을지연습'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

끌어 내고 국가 안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영진 경비구조과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국가 안보가 절실한 시기에 실시되는 연습인 만큼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숙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습기간 중에도 서해 바다를 위한 빈틈 없는 해상안전과 치안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보성 '웅치 올벼쌀' 첫 수확

추석 명절 고품질 웰빙식품 '인기'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 보성군(군수 이용부) 웅치면에서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올벼쌀 수확이 시작됐다. 생육기간 동안 어려운 기상여건에도 생장기의 풍부한 일조량으로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올벼쌀을 수확했다. 전국 올벼쌀 생산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웅치 올벼쌀은 올해 청정 들녘 150ha, 141농가에서 약 6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표시 제71호로 등록된 웅치 올벼쌀은 순수한 찰벼 만을 안숙되기 전에 수확해 전통방식의 가마

솥에서 수증기로 찌서 햇볕에 건조하고 현미로 도정한 쌀이다. 예로부터 추석 명절에는 반드시 햅쌀밥을 차려 상에 올렸던 전통을 계승시킨 찰 찹쌀 가공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고품질의 웰빙식품으로 함양 효과,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난 간식과 산식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군에서는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웅치 올벼쌀 친환경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올벼쌀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 간식으로 사랑을 받을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 보성군 웅치면에서 1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올벼쌀 수확이 시작됐다.

수 있도록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지속적인 홍보 관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 봄 가뭄으로 초기 생육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올

벼쌀 생산이 기대되며, 지속적인 관촬 활동, 가공시설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새로운 소비 시장 창출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천석 기자**

담양군,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담양군은 담양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자,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총 2만13739원, 3억9300만원이며, 물가

상승과 고지서 인쇄비 등 징세 비용의 증가로 개인 균등분 세율이 올해부터 1만원으로 인상됐고, 개인 사업

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만원 차등 세율이 적용됐다. **■김민경 기자**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민경 기자**

강진거점고, 21일 신축교사 이전

지난 1980년 3월10일 개교해 총 69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의 명문 강진고교가 약 1년 6개월 동안의(구)성요셉여고 이전 교육과정을 마치고 신축교사로 이전한다. 10일 교무실과 행정실 이전 완료했으며, 오는 21일 2학기 개학에 맞춰 학생들이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한창이다. 2013년 6월 강진군은 '거점고 지정 법국민 추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군민의 35%인 1만4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 2014년 1월 강진고를 거점고로 지정했다. 2016년 2월부터 강진거점고 증·개축공사가 시작돼 올해 7월 완공됐다. 증·개축공사로 교사를 이용할 수 없던 강진고 학생들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년 6개월을(구)성요셉여고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국비 238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교사동 신축, 다목적 강당 보수, 급식실·기숙사 증축 등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필요한 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마무리 정리공사에 한창이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 거점고 교사의 눈물겨운 노력과 뜨거운 성원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공사가

간 이전교사에서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노고가 더해졌다"며 "21일 2학기 개학과 함께 여느 때도시 못지 않은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가 조성돼 '학생이 떠나는 강진에서 돌아오는 강진'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학교와 긴밀히 협조해 향후 대한민국의 명문 거점고가 되도록 힘을껏"이라고 말했다. **■최성장기자**

장흥군, 영보저수지 물고기 집단 폐사

의용소방대 수거 '구슬땀'

장흥군은 지난 11~14일 4일 간에 걸쳐 대덕을 의용소방대(대장 김성수) 대원 20여 명이 대덕을 영보저수지에서 폐사 물고기 수천마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무더운 날

씨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면서 악취가 풍기는 물고기 폐사체 수거를 완료했다. 영보마을 주민과 동리민(보·저수지 등)해택이 미치는 지역의 거보저수지에서 폐사 물고기 수천마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폐사체 수거를 위한 주변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앞장 서서 도와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대덕읍사무소와 대덕을 의용소방대는 '주민복지·안전 분야' 업무협약을 맺어 평소에도 취약계층 안부 살피기, 재난 우려지역 예찰 및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정규근 기자**

순천시, 청사건립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 시상금 수여·청사 건립에 반영

순천시가 시민의 집이자 시 백년대계인 청사 건립에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첫 삽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청사 건립에 반영하기 위해 '순천시 청사 건립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10월10일까지 진행되며,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건립 방향 및 상징성 확보를 위한 유·무형적 아이템, 시인 공간 조성 및 활용 계획, 생태수도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적 요소 도입방안, 청사 건립 시 현 청사 활용방안, 청사 건립과 관련한 창의적 의견 등이다. 접수된 시민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심사단과 순천시 제안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채택될 경우 시상 표창과 함께 시공급

이 수여된다. 참여는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 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 건립을 시작한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해 순천시 위상에 걸맞은 랜드마크가 되는 동시에 시민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아이디어 공모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 청사 건립은 실용적이면서 순천다운 생태도시 모델 구축 비전을 가지고 현 청사를 중심으로 부지 확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청사 설명회 등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위치를 확정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영암군,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

영암군(영암군수 전동평)은 2017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운영한다. 지난 16일 군청 도선실에서 군과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에 따른 각종 훈련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을지연습 교육을 실시했다. 2017 을지연습 주요 일정으로는 21일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 시·지·계 편성훈련, 기관 소산훈련, 을

지연습 최초상황 보고회가 개최된다. 23일은 우리 군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토의와 제40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되며, 24일은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주민 참여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종결보고를 끝으로 을지연습이 마무리된다. 군 관계자는 "남·북이 미묘한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제404차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이나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될 주민 참여 실제훈련에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2017년 희망곡성 전국 실버야구대회' 열려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남권 최초로 '2017년 희망곡성 전국실버야구대회'를 곡성군 삼전강변야구장과 석곡 대항강체육공원 야구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곡성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도전과 열정의 야구 대전으로(사)대한실버야구소프트볼연식(회장 최재홍)이 주최하고 곡성군, 곡성군 체육회, 광주실버야구단이 주관하는

대회로써 전국 16개팀 약 400명이 참여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장년층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국실버야구대회는 (사)대한실버야구소프트볼연식 연맹에 등록된 50세 이상 장년층으로 구성된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며, 젊은이들 못지 않는 열정과 실력을 마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점도어촌체험마을에서 개매기 바다체험 행사가 열린다.

진도 점도어촌체험마을 '개매기 바다체험'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점도어촌 체험마을에서 개매기 바다체험 행사가 열린다.

17일 군에 따르면, 의신면 점도어촌 체험마을을 앞 갯벌에서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부터 '개매기 바다체험'

이 진행된다. 개매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클 때 갯벌에 그물을 쳐 놓고 밀물 조류를 따라 들어 온 물고기가 썰물 때 갯벌로 도록 하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다. 물이 빠진 갯벌위 그물에는 주로 숭어, 농어, 돔 등이 갇히게 되면 이때 체험 관광객들이 들어 가 맨손으로 직접 잡는다. 잡은 물고기는 회로도 맛 볼 수 있다. 개매기 체험 전에 참가자들은 어촌마을 발전 기금으로 어른 1만원, 어린이 5000원을 기부하면 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청정해역 보배섬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과 평생 잊지 못할 독특한 체험인 개매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전일환 기자**

제19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본선 대회

대구, 18일부터 3일간 대구체육관서 12개 종목·15개 부문 열전... 595팀 799명 선수 참가

대구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구체육관에서 '제19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International Robot Olympiad) 한국본선 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 대한로봇스포츠포럼이 주관하는 '17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본선 대회'는 전국 예선을 통해 선발된 초·중·고등학생 595팀 799명의 선수가 참가해, 로봇레슬링 등 총 12개 종목 15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룬다.

상위권에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12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는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신장과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9회를 맞는 국제청소년 로봇경진대회이다. 대구시는 이번 한국 본선대회 개최를 통해 로봇산업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로봇산업진흥

정책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고 현대로보틱스, 아스카와전기, KUKA로보틱스 등 글로벌 로봇기업들을 유치한 대구는 개최도시로서의 홍보효과와 더불어 로봇산업클러스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대회를 통해 로봇관련 방과 후 수업 확대 및 전문지도자 확충, 각종 로봇관련 행사 활성화로 지역 교육용 로봇기업과 교육기관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한국본선 대회에 참가선수를 비롯해 전

국에서 1,5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직접 소비에 따른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 최은백 창조경제본부장은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구)본선 대회는 로봇선도도시 대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경제효과뿐 아니라 교육·사회·문화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능력을 키우면서, 수준 높은 대회를 통해 얻는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달 기자

영덕,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개관

22일부터 산림생태공원내서 열려... 옥상 하늘바다 정원 인기

영덕군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산림생태공원 내 정크트릭아트 전시관을 개관한다.

정크트릭아트 전시관은 정크아트와 트리아트를 융합하여 또 다른 공간을 연출한 테마 전시관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고철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만든 예술작품인 정크아트와 평면의 그림으로 놀라운 착시효과를 주는 트리아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전시관은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내 연면적 808㎡(약245평) 규모로 1·2층의 테마 전시관과 옥상의 하늘바다 정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시관 안팎에는 정크아트 34점과 트리아트 7점 등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건물 앞에 서 있는 12m 높이의 대규모 장군상과 건물 외벽을 뚫고 나온 듯한 청룡상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온 수많은 장군들을 상징하는 이 장군상은 눈앞에 펼쳐진 동해바다를 향해 힘차게 손짓하며 동해바다를 지키는다는 전설의 푸른 용과 함께 동해와 독도, 나아가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힘찬 기상이 서려있다.

또한 전시관 내부에는 다양한 테마의 정크아트와 트리아트 작품들이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어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옥상의 하늘바다 정원은 풍력발전단지과 산림생태공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멋진 전망과 함께 팬더 조형물 40여 마리가 설치되어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고의 포토존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성인 5,000원, 중·고등학생 4,000원, 만3세부터 초등학생까지는 3,000원이고 만3세미만 만65세 이상,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는 무료이며, 영덕군민 및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경주, 포항, 울진, 울릉) 주민들은 20%할인된 가격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영덕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새로운 체험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뿐 아니라 영덕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며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패키지 구성 등 다양한 이벤트와 실속 여행상품을 마련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영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형기 기자

사진·영상기록관 구축

울진, 모바일·인터넷에 공개

울진군은 각종 시청각 기록물 자료를 디지털화해 지역민들에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개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 기록관을 구축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디지털매체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진·영상 자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사진·영상기록관 구축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24만 건의 사진·영상 자료를 체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해 8월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사진·영상기록관은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와 손쉬운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군정행정, 관광, 안전재난 등 13개의 주제별로 분류했으며, 시대별, 읍면별 분류 기능도 같이 제공해 주민들이 다양한 자료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수유형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울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기록관이 될 것이다"며 "추후 자료정비와 시스템 안정화기간을 거친 후 9월 중 정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형기 기자

안동서 제12회 NEAR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5개국 20개 자치단체 참가... 전통문화·인문자원 산업화·국제화 방안 논의

경상북도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안동과 경상북도 일원에서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NEAR :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의 한·중·일·러·몽 5개국 20개 회원단체와 관련기관 소속 참가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NEAR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회의 첫날인 16일에는 각국에서 임명하는 회원단체 참가자에게 한국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개회식을 비롯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됐으며, '유교랜드'를 방문해 선비정신을 계승한 유교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문경새재에서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전통문화·인문자원의 산업화·국제화'라는 주제

로 안동한의대 정원길교수의 주제연설과 안동대 김시범 교수, 성신여대 심상민 교수의 특별강연, 참가 자치단체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돼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통문화와 인문자원을 산업화·국제화 측면에서 통찰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주제 강연자인 정원길 대구한의대 교수는 IDA 영양밤하늘보호공인 지정사례를 통해 지역자원의 산업화·국제화 사례를 제시했고, 특별 강연자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와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각각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과 도시 브랜드 마케팅 전략, 아시아적 가치창성의 문화유산 경영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경북도는 NEAR 경제통상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열어 회원

단체 간의 경제통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기존의 분과위원회를 경제와 문화가 융합된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3회째 분과위원회를 열고 있다.

우병문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회의에 앞서 개회식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이자, 웅도 경북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갈 안동에서 분과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가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인문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새마을 세계화 사업 등을 통해 세계인과 소통하는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과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교류협력을 더욱 내실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형기 기자

의성군, 건설기계인 권익보호 위한

3/4분기 건설현장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의성군은 17일부터 18일까지(2일간) 군내 대형 공사사업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3/4분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기계임대

차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보호의 목적이 있다. 군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연4회에 걸쳐 대형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의 무기계약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의성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성달 기자



청송군이 주요 관광지과 도로변 주변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다.

청송, 도로변 가로수 정비 팔건어

관광객 편의 위한 가지치기·풀베기·덩굴제거

청송군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주변 대형버스 등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 정비에 나섰다.

군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 대명리조트 개장 등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청송을 방문하고 있고, 특히 관광버스 등 대형버스 운행이 증가해 가로수 가지 등 교통에 방해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주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사업 방재단 등 자체인력을 활용해 청송 약수탕 주변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 주변 및 도로변 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과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제거·풀베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이번 도로변 가로수 정비를 시작으로 청송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성달 기자

김영한 의성조문국박물관장은 "막바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려고하는 시점에서 개최하는 8월 농부달장에 신선한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체험도하고,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도 구매하고, 작은 음악회도 함께 즐기 고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입장권이나 사전 예약 없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조문국박물관 관리계 (054-830-6909)로 문의하면 된다.

■남형기 기자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대구시-한국장학재단-전국 27개 대학, 100만~290만원 지급

대구시와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해 전국 27개 대학은 지난해 11월 서문시장 4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대학생 자녀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 96명의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서문시장 화재 발생 이후 대구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 상인들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 상인들의 대학생 자녀 현황 파악과 장학금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권영진 시장까지 직접 나서 학생들이 재학 중인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친서를 보내 학교 사정에 맞는 장학금 지원과 격려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구시 자체 재원이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체 45개 대학 132명의 피해상인 자녀 중 휴학생과 전면 장학생 등 36명을 제외하고 45개 대학 96명의 대학생들이 100만원에서 최대 290만원까지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역으로는 전국 27개 대학 자체에서 피해 학생 68명을 지원했으

며, 한국장학재단에서 11개 대학 16명, 대구시 인재육성 기금에서 9개 대학 12명에게 장학금을 각각 지원했다. 노기호 서문시장4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실의에 빠진 상인들이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화재피해 상

인들의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이와 같은 특별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전국의 대학들과 한국장학재단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로 지정된 베네시움은 보강공사가 완료돼 피해 상인 246명이 입점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삼금 기탁자 등을 초청해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황성달 기자

영덕군 “동해선 철도 비전철화, 시대 흐름 역주행”

디젤열차 속도·수송력 저하 및 매연·소음 환경피해 심각

올 연말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구간 동해선 철도가 화석연료(디젤) 열차로 운행되는 비전철로 추진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군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전철 방식의 철도가 교통편의 제고와 경제효과 측면에서 당초 기대에

현저히 못 미치는데다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비전철 디젤열차는 전기철도에 비해 속도가 20~30% 떨어지고 수송능력 또한 절반 수준으로 대규모 물류 수송이 불가능해 철도의 기능과 역

할이 크게 제한된다. 게다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하고 매연·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소음도 커서 철도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성능이 떨어지고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동해선 철도 비전철화'는 탈원전, 탈화석연료'가 핵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며 '저탄소 사회'를 지향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철도 고속화 서비스의 전국 확대'와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영덕군민들 사이에선 환경·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시대 착오적인 동해선 철도의 전철화를 위해 범군민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연말 개통을 앞둔 동해선 철도 공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덕군도 올해 개통하는 동해선 철

도 포항~영덕 44.1km 구간을 조기에 전철화하도록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부처에서는 거시적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과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흐름에 부합하고 미시적으로는 지역사회 교통 편의성, 환경피해 방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해선 철도의 전철화' 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형기 기자

경주시 황성동, 화랑대기 축구대회 기간 황성공원 집중방역

경주시 황성동 주민센터(동장 임동주)에서는 지난 10일 개막해 순항 중인 2017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황성동은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 화랑대기 축구대회에 맞춰 황성공원 축구공원 일원에서 집중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역작업은 감염병 매개체인 모

기 방제를 위해 비로 인해 생긴 웅덩이 및 하수구 등 고인물에 유충 구제 약품을 살포하고 축구공원 일대에 연무 소독을 실시함을 통해, 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들과 임원들이 경기에 전념해 좋은 성적

을 낼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동주 황성동장은 "황성공원을 찾은 화랑대기 유소년 선수와 학부모가 불편함이 없이 경기와 응원에 임할 수 있도록 실시한 이번 방역작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석 기자

영덕군, 국가위기관리 연습회의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16일 영덕군청 통합방위상황실에서 을지 연습의 일환으로 북한의 ICBM 미사일 실험과 최근 8월 전쟁설 등 북한의 도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됨에 따라 국지도발 사태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영덕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전쟁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017년 국가위기관리 연습(CMX)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전쟁 전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해 영덕을 화개리(문화체육센터, 삼림아파트 등) 일대 피폭 상황을 주제로 영덕군청을 비롯해 영덕경찰서, 영덕소방서, 5312부대 2대대, 7516부대 3대대, 한전 영덕지사, KT 영덕지점 총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북한군의 국지도발 시 행동 매뉴얼에 따라 영덕군 위기 대응반을 구성해 각 기관별 대응 및 복구 등 총체적인 조치사항을 보고했으며 참가자들은 훈련 종료 후 적극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이번 회의에 잘된 점과 문제점을 도출했다.

▶남형기 기자

안동시, 복싱·수영·철인3종대회 개최

'제4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 생활체육복싱대회' 겸 '제47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가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되고, '2017 안동철인3종대회' 및 '제1회 안동낙동강변 전국수영대회'가 19~20일 안동낙동강변(새마을회관 앞)에서 각각 개최된다.

대회는 수영(1.5km), 사이클(40km), 달리기(10km) 순서로 남자부, 여자부, 릴레이부로 나눠 우승자를 가린다.

철인3종대회 수영 종목이 끝나면 이어서 제1회 안동낙동강변 전국수영대회가 시작된다.

안동시수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 대회는 전국의 수영 동호인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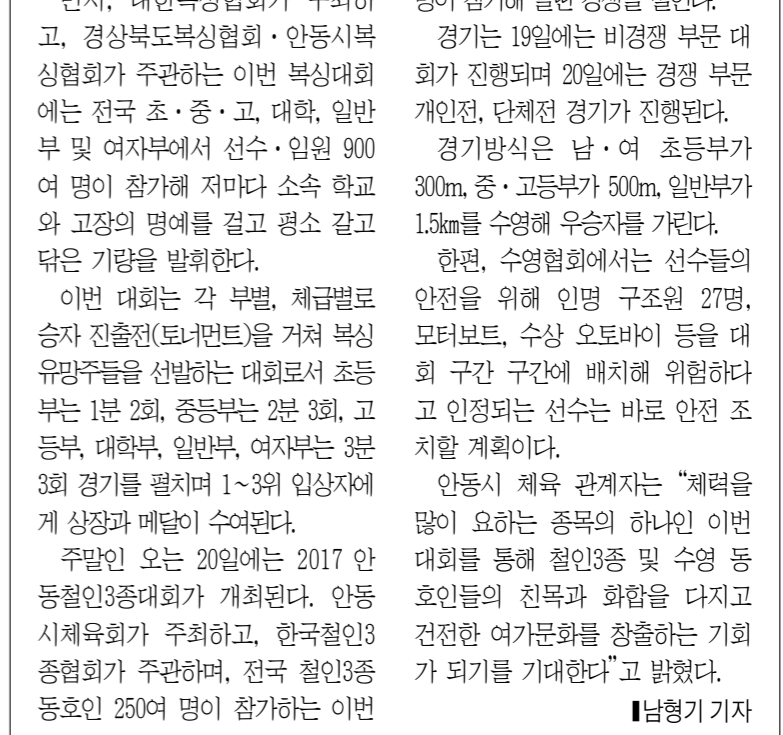
경기는 19일에는 비경쟁 부문 대회가 진행되며 20일에는 경쟁 부문 개인전, 단체전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방식은 남·여 초등부가 300m, 중·고등부가 500m, 일반부가 1.5km를 수영해 우승자를 가린다.

한편, 수영협회에서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인명 구조원 27명,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을 대회 구간 구간에 배치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는 바로 안전 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체육 관계자는 "체력을 많이 요하는 종목의 하나인 이번 대회를 통해 철인3종 및 수영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형기 기자



안동계란, 살충제 검사 '적합 판정'

안동시는 지역 내 산란계 농장 식용란에 대한 살충제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피프로닐 등)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안동시는 지난 15일 지역 내 산란계 3개 농장 출하를 중지했다.

곧 바로 이들 농가의 식용란 시료

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16일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농장에 증명서 발급 후 유통을 허용했다.

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

고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부적합 식용란 발생 시 즉시 회수하고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와 대형 매장 등 식용란 판매업소에 대해

서도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이 유통·판매되도록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란 파동과 관련해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이번 살충제 결과 안동은 안전한 곳으로 판정된 만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고 전했다.

▶남형기 기자

회 경주시지회는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여성지립지원센터 운영, 독거 노인 초청 사랑 나눔행사, 사랑나눔 걷기대회, 복지 일자리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석 기자



울진군 매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7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울진군매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앞장

울진군(군수 임광원) 매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7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이번 '행복한 보금

자리 만들기 사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된 싱크대와 도배·장판 등의 교체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남형기 기자

2017 경주 지체장애인 지도자 하계 수련회

경주시에서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지회장 전찬익)의 주관으로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하계휴양소(나정해수욕장)에서 '2017 경주지체장애인 지도자 하계 수련회'를 실시했다.

이 날 수련회는 강철구 경주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 장애인단

체인, 기관단체장 및 경주 지체장애인 회원과 임원,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중식시간과 화합한마당 등 시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원 및 후원자간의 유대감을 도모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미래지도자를 육성코자 힘썼다.

행사를 주관한 경북지체장애인협

회 경주시지회는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여성지립지원센터 운영, 독거 노인 초청 사랑 나눔행사, 사랑나눔 걷기대회, 복지 일자리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석 기자

세븐에이트

어두워지지 않는 새치 염색 - 세븐에이트

언제나 밝은 느낌 -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여성용]

새치와 검은 모발의 편차가 적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두워지지 않아 처음 색상 그대로 밝고 빛나는 컬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5호 (금빛 갈색) ● 4.63호 (주황빛 밝은 갈색) ● 5.4호 (진한 다홍빛 갈색)

세븐에이트 전국모바일 | 텔러트 차 화 연

|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 가뭄지역 중·장기 대책 수립

실태조사... 10곳 재해지역 지정 권고·38곳 관정 개발 등 추진

전라남도는 기후변화로 매년 반복적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안 등 4개 군 10개 지구에 대해 해당 군에 상습 가뭄 재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상습 가뭄지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안·영광·진도·신안 등 10개 군이 상시 가뭄지역으로 파악됐다. 세부 유형별로 농업용수 가뭄지역은 10개 군 47개 지구, 생활용수 가

뭄지역은 영광·신안 2개소다. 이 가운데 신안군이 19개소로 가장 많았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가뭄지역 가운데 면적이 50ha 이상이거나 소요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4개 군 8개 지구가 상습 가뭄 재해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수해 면적 및 소요 사업비가 비교적 적은 나머지 9개 군 38개 지구는 시·군에서 단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있다.

가뭄지역 가운데 단기대책이 필요

한 곳은 38개 지구로 103억원이, 상습 가뭄 재해지역 지정 등 장기대책이 필요한 곳은 10개 지구로 412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관정 개발 및 소규모 양수장 개발 등 단기 대책이 필요한 38개 지구에 대해서는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등을 통해 5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습 가뭄 재해지역으로 지정 권고된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및 항구적 가뭄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상습 가뭄을 해소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중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가뭄 가뭄을 대비해 용수 공급 부족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도민 물 절약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충북도, 의병 역사 뮤지컬 '의병아리랑' 지역 브랜드화 도모

제천문화예술학교 갈라쇼 홍보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충북자유기획사업에 선정된 역사뮤지컬 '의병아리랑'을 충북도민과 함께 하기 위해 제천문화예술학교는 갈라쇼 홍보에 나섰다.

'의병 아리랑'은 의암 류인석이 이끌던 호좌의진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었던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어 의병의 고장 제천을 알리는 뮤지컬이다.

제천문화예술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제천지역의 의병 역사를 홍보하고 지역문화예술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며 매년 공연을 제작해 왔다.

거리공연을 통해 공연을 홍보하고 의병 역사를 도민들과 함께 문화로

즐거며 배우는 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오후 2시 제천 한방엑스포 주말장터에서 갈라쇼를 1차 진행하고, 2차는 오는 9월11일 오후 4시 중앙시장에서 추진하며 본 공연은 11월6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이번 갈라쇼는 뮤지컬 속의 주역인 류인석 장군이 하극상을 물어 감백선을 처형하고 아픈 마음을 전하는 노

래와 102년 전에 불타 없어진 제천의 마지막 전투가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배우가 극중곡을 선보이고 제천 의병 승계자들이 의병역사 이야기부스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 준다고 한다.

충북문화재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충청북도 제천지역의 의병 역사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의병역사를 특성화된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민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농지금희망케어센터

(센터장 신영미)는 지난 16일 KORAIL 도농역(영장 조진호)과 지역주민 행복한 삶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농역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해피트레인 사업 및 영화 관람 등 문화활동 행사에 도농지금희망케어센터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문화활동 체

KORAIL 도농역-남양주 도농지금희망케어센터

주민 행복한 삶 영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미는 KORAIL 한국철도공사 사랑의 성금(Love Fund)과 도농지금희망케어센터에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조진호 도농역장은 "폭 넓은 문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농지금희망케어센터는 기존에도 도농역에서 the나눔캠페인과 생활복지 캠페인 등 지역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본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더욱 활발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복선 기자

수원시, 8월부터 은행 수거작업 시작

결실기 자연낙과 전 수거... 약취민원 사전 차단

수원시는 공원녹지사업소와 각 구청에 7개 '은행 수거 전담반'을 구성하고 오는 8월 하순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은행 수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은행 열매 약취를 미리 차단하고 보행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가로수 7만1412주 중

약 17.47%인 1만2476주가 은행나무

이면서, 그 중 3600여 주(29%)가 열매를 맺는 안나무이다.

이번 은행 수거 작업은 △경수대로 교육원삼거리~일련교 3.8km △정조로 일왕삼거리~세류삼거리 5.7km △효원로 경기도청~문화의전당 사거리 3.3km △중부대로 중동삼거리~삼성전차 사거리 4.8km △매송고색로

오동나무 삼거리~벌말교차로 3.6km △수성로 강남아파트~수원북중사거리 5.4km 등 전체 26.6km 구간 은행나무 800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등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지점을 대상 구간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조기 수거 작업으로 자연 낙과로 인한 도로변 약취, 은행 무단 채취로 인한 가로수 훼손, 각종

안전사고 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은행 수거작업과 함께 매년 5월 약물을 이용한 은행나무 결실 방지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결실 방지 전용 약물을 은행나무에 주입해 나무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꽃·과일·씨앗을 크게 줄여 주는 작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마다 가을이면 은행 열매 약취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열매가 다 익어 자연 낙과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방식으로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기자

제3회 경북도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시상식 개최

예선 184명·본선 38명 중 최종 18명 수상자 선정

경상북도는 17일 오후 3시 김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3회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18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도립교향악단 협연 축하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보성 김천시장, 도의원 등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과 지도교사, 학생 등 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중·고·대학/일반부로 진행된 이번 콩쿠르에서 서울대학교 민한별(여·23세) 양이 전체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대상 수

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500만원과 함께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과 협연의 기회도 주어졌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성악가의 꿈을 키워 가고 있는 청소년 184명(중 20, 고 69, 대학/일반 95)이 참가해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18명의 수상자가 확정됐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과 콩쿠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본선 심사위원장으로는 현재 폴란드에서 인도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유나이티드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도이치 오퍼 베를린 캄머슬리스트 객원지휘자로 활동하고 있

는 피요트르 볼코스프키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종 심사를 총괄했다.

한편,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콩쿠르'는 지난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로 이미 국내 성악자 사이에서는 관록 있는 성악 경연대회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높다.

특히,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는 2013년 개봉한 영화 '파파로티'의 스토리처럼 재능은 있으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청년 성악자를 발굴해 미래 성악인재로 육성하고, 도전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전국 단위 성악 경연대회다.

■남형기 기자

충남도, 수학여행 전문여행사 초청 체험 위주 팸투어

백제 역사 및 생태·안보·충효·농촌 체험 등

충남도가 지난 17~18일 전국의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 대표 및 상품기획자 19명을 초청, 백제 역사와 생태, 안보, 충효,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다시 쓰는 충남 수학여행'을 주제로, 기존 공주·부여 중심의 백제문화 유적 외에 농촌 체험, 생태, 안보 등 충남의 다양한 체험거리를 소개해 수학여행을 유치하고자 기획됐다.

팸투어 첫 날인 17일은 백석유미마을 체험거리와 시설 소개를 시작으로 낙농 체험장인 아그로랜드 태신목장과 사과 따기, 파이 만들기 등 체험이 가능한 은성농원을 방문했다.

이어 세계 5대 기후대의 동·식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국립생태원을 거쳐 스카이하이크, 풍자복마을, 한산모시관 등을 둘러 봤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홍삼 제조공정을 둘러 볼 수 있는 인삼박물관 시



충남도가 지난 17~18일 전국의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 대표 및 상품기획자 19명을 초청, 백제 역사와 생태, 안보, 충효,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팸투어를 실시했다.

설과 백제문화단지 방문하고 수상레저 체험장인 백마강레저파크, 도자기 체험장 백제요 등을 방문했다.

이후 안보 체험을 테마로 논산 밀리터리파크와 계룡대 답사를 끝으로 팸투어는 마무리됐다.

■진보라 기자

준 쿠폰으로 마련한 음식이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의 이웃사랑 실천 뜻도 함께 전달했다.

한 달 동안 모아진 쿠폰 430여 장은 지난 회 모인 쿠폰과 합산해 다음 회에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배달 음식업체를 추가 발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문양휘 기자

양주시 회천2동, 행복배달음식 지원

배달음식 쿠폰 모아 이웃사랑 실천

경기 양주시 회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매월 1회 추진 중인 '어려운 이웃 마주하는 날'을 맞아 '자녀 낙과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방식'으로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수거된 쿠폰을 활용해 해당 배달음식업체와 MOU체결,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독거 노인, 한부모 가족 등 47가구에 배달음식(탕수육 등)을 배달 안부 확인과 함께 예로사항도 들어 주고, 회천2동 전 주민이 모아

원산지표시는 농산물의 출생신고입니다

더 명확하게! 더 잘 보이게!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 내용

- ▶ **음식점 원산지표시 강화**
 - 원산지 표시품목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품목 추가
 - 20개 표시품목은 모든 조리용도에 원산지 표시 적용
 - * 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은 조리용도 한정
 - 원산지표시판 A3크기(29cm×42cm), 글자 60포인트(가로·세로 약 2.2cm) 이상으로 확대
-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 3순위까지로 확대**
- ▶ **배달음 등 조리음식 통신판매 시 원산지표시 강화**

*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